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김 순 배*

Types of Place Names According to the Named Sources and Those Cultural-Political Meanings

Kim, Sun-Bae*

요약 : 모든 지명이 지나고 있는 명명 유연성은 지명과 공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지명의 지리학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지명 유연성은 지명을 생산하고 변경시키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나에 따라 그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명의 생성과 변천은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재현, 나아가 이를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실증하기 위해 필자는 공주목 진관 구역의 지명을 사례로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 분류와 그 안에 담긴 문화정치적인 의의를 살펴보았다. 공주목 진관 구역의 위치와 영역이 지난 경계적이고 접이적인 성격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거주와 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들에 의한 다양한 지명 생성과 변천 경로를 양산하였다. 특히 공주목 진관 지명들은 전부 지명소의 명명 유연성에 따라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지명이 명명되고 변천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그들의 장소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거나 권력관계를 통해 지명을 변경하려 한 다양한 문화정치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지명, 명명 유연성,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 문화정치

Abstract : The named source kept in all place names alludes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lace name and its place while it also become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geographical research on place names. Meanwhile, the named source may be recogn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who the social subjects producing and changing place names are. Place names represent and constitute the identity and the ideology of the diverse social subjects. This aspect is related to cultural politics concerned with conflicts and contestation among different social subjects over the meaning of place names. Particularly, the *Gongju-Mok Jingwan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has long history and geopolitical location as a borderland and a buffer zone. As a result, it has provided many cond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and power relations, both of which have caused social subjects to contest their social power across space and time, and has led to produce the several types in the changes of place nam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types according to the named source, especially that of the forepart of place names morpheme, and those cultural-political meanings. These place names are classified into three large groups, such as the physical place names, the social place names, and the economic place names. These types of place names have represented the place identity and the ideology of diverse social subjects, and also accompanied the changes by power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Key Words : place names, named source, physical place names, social place names, economic place names, cultural politics

1. 서 론

모든 지명(place names)은 사회적 주체에 의한 명명과 인식 단계에서 일정한 ‘유연성(有緣性)’이 작용하면서 생성되거나 변천하게 된다.¹⁾ 지명의 유연성이란 지명이 발생하게 된 공간상의 특정한 사실과 현상이 음성과 문자 상태로 지명에 반영되어 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지명과 장소·공간 사이

에 긴밀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²⁾ 예를 들어 ‘긴꼴’과 ‘역꼴’이란 지명은 지명이 통칭되는 지명 영역 내에 각각 긴 골짜기의 곡지 지형과 역원 제도 하에서 설치되었던 역터(驛基)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을 주요한 지명 유연성으로 인식한 지명 연중들에 의해 생성된 지명들인 것이다.

이러한 명명 유연성에 따라 지명은 크게 자연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gogeo@hanmail.net)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분류되며, 그 하위에 각각 다양한 지명들로 재분류되기도 한다(김순배·김영훈, 2010, 212-214). 그런데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생성과 변천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그들이 소유한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로 부합되는 의도적인 지명 명명과 개정 과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지명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 과정은 지명이 지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말해 주며, 이는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포함과 배제, 갈등과 경합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s)를 공간적으로 연구하는 신문화지리학의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 분야로 우리를 인도한다.³⁾

그러나 과거 사우어식(Sauerian) 전통 문화지리학이 수행해온 문화지리와 지명 연구는 문화 전파와 문화 생태적 연구를 중심으로 형태적인 결과로서의 물질적 문화 요소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문화적 사실과 현상에 내재된 현실 사회의 권력관계와 생성적이고 과정적인 문화에 대한 사회 맥락적 이해에 소홀하였다. 국내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 또한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에 작용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와 관계의 분석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 지명이 간직한 차자 표기(借字 表記)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지명 표기자의 뜻(訓)을 기준으로 명명 유연성을 분류하면서 분류의 신뢰성을 의심받았고, 이러한 분류에 티하여 지명 유형들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는데 머문 정태적이고 형태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례로 과거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진 지명 연구는 대체로 지명의 유형별 분포와 지리적 환경과의 상관성을 고찰한 연구들로서 산지 지역과 평야 지역 간의 지명 유형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고찰하거나(전경숙, 1979), 자연 촌락명을 수집하여 지명을 의미론적으로 유형 분류한 연구(신현웅, 1981; 안교식, 1989; 김옥자, 1991; 이학원 등, 1995), 특정 지역의 지명을 수집하여 접두어와 접미어별로 유형 분류하고 명명의 의미론적, 유연성적 측면과 그 분포의 특색을 파악한 연구(이환곤, 1986), 혹은 명명 기반에 따른 지명 유형을 분류하여 지명과 지리적 환경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그 분포의 특색을 파악한 연구(서명인, 1998)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연구는 지명의 명명 유연성 분류에 있어 수집한 지명들을 표기하고 있는 한자 혹은 한글을 차자 표기법(音借法, 訓借法, 訓音借法)과 관련된 국어학적인 검토 없이 문자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여 분류함으로서 유형 분류의 정확성에 있어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진 형태적인 지명 연구에 대한 반성은 이제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에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적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명 연구 방법론과 연구 성과가 비판적으로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지명, 특히 공주목 진관 구역(公州 牧 鎮管 區域)⁴⁾의 지명(이하 공주목 진관 지명)을 사례로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을 차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분류한 후 이들 지명 유형들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정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명의 명명과 변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재현(representation), 그리고 지명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지명을 생성시킨 명명 기반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 지명 유형들은 자연 지리적 명명 기반을 지닌 자연적 지명(지형 지명, 방위 및 숫자 지명), 사회적 소속을 재현한 사회적 지명(성씨 지명, 군현명 표기 지명),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지명(산업 지명, 상업 지명)으로 구분되며 지명소(地名素), 특히 전부(前部) 지명소가 지닌 명명 유연성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⁵⁾

연구 대상 지명인 공주목 진관 구역 소속 13개 군현에 소재한 지명 자료들의 수집과 고증 작업, 그리고 지명별 변천 조사에는 지리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특히 지명 자료의 고증에 있어서는 국어학적인 음운 및 어휘 변화와 관련된 개념과 한자 지명의 차자표기법에 관한 이론들을 적용하였다. 국어학적으로 고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고문헌과 고지도,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개인 문집류 등의 기타 자료들에 기록된 지명 이 표기(異表記)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내 문헌 조사로 풀리지 않은 지명 고증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의 답사와 현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지명 고증과 변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명들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東國輿地志』(1656~1673), 『輿地圖書』(1757~1765), 『戶口總數』(1789), 『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地志』(1800년대 중반),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현대 각 시군 지명지』(20세기 후반 이후 간행)의 문헌별 8시기로 구분하여 지명 변천에 관한 도표를 작성하였다.⁶⁾ 그 결과 도합 2,156개의 군현 지명, 향·소·부곡 지명, 역원 지명, 산천 지명, 촌락 지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을 선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연적 지명

‘자연적 지명’은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지명들 중 전부 지명소의 명명 유연성이 자연 지

리적 특성과 관련된 지명들을 말한다. 본 논문은 위치, 지형, 기후, 토양 등으로 구성된 자연 지리적 요소들 중 지명이 생성된 장소의 지형을 반영하는 ‘지형 지명’과 장소의 동서남북 방위, 전후(前後) 등의 위치와 그 순서를 표현하는 ‘방위 및 숫자 지명’을 중심으로 자연적 지명을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문화정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지형 지명

지형 지명은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자연적 지명들 중 전부 지명소의 명명 유연성이 지형과 관련된 지명들을 분류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형 지명들은 다른 자연적 지명들의 유연성에 비해 그 유래가 정확하며 가시적인 형태 확인이 가능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형 지명은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시켜 각각 산지와 하천의 분기 지형과 합류 지형, 곡지 지형, 평지로 둘출한 선상(線狀) 구릉 지형, 하천 곡류 지형으로 분류되며 이를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형 지명

분류	해당 지명	현 행정구역	지명의 유연성
분기 지형	가래울(楸洞)	청양군 장평면(적곡면) 중추리 서천군 화양면(남하면) 추동리 대전시 동구(동면) 추동리	* ‘가로’계 지명: 산지 및 하천의 분기 지형 반영
	가래울(楸木里)	대전시 유성구(탄동면) 추목리	
	갈내(蘆川, 蘆川村, 蘆村)	논산시 가야곡면(상두면) 양촌리	
합류 지형	은골(隱谷)	청양군 장평면(적곡면) 은곡리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송학리	* ‘얼’계 지명: 하천의 합류 지형 반영
	은골(隱洞)	연기군 서면(복삼면) 기룡리	
	은골, 수문골(隱洞, 漁隱洞)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은골(漁隱洞, 漁隱)	논산시 연산면(백석면) 어온리	
	은골(魚隱洞)	공주시 우성면(성두면) 죽당리	
	은골(魚隱里, 於隱洞)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은룡리	
	魚隱洞	공주시(남부면) 웅진동	
	漁隱洞	청양군 화양면(남하면)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은골(漁隱洞)	부여군 충화면(필충면) 복금리	
	언골, 은골(魚隱洞)	대전시 유성구(천내면) 어운동	
곡지 지형	마근골(麻斤洞)	청양군 목면(목동면) 안심리 청양군 정산면(잉화달면) 학암리	* 폐쇄적 곡지 지형 반영
	麻斤洞里	대전시 유성구(읍북면)	

선상 구릉 지형	麻根(斤)洞里, 麻斤里	공주시 장기면(동부면) 송선리	<p>* 소규모 분지 및 곡지 지형 반영</p> <p>* 곡지 및 산지 북사면 지형 반영(적은 일조량)</p> <p>* 선형(線形)의 곡지 지형 반영</p>
	馬斤(莫隱)古介里	계룡시 두마면	
	莫隱洞	계룡시 두마면	
	막은골, 망골(杜谷里)	공주시 장기면(삼기면) 당암리	
	杜毛谷里	공주시 우성면(성두면)	
	두메안, 두마니(斗萬)	공주시 의당면(요당면) 두만리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두만리	
	음지편(陰地里)	서천군 한산면(북부면) 자현리	
	山陰里	연기군 전의면(대서면) 서정리 서천군 한산면(북부면) 자현리 공주시 신풍면(신하면) 산정리	
	어두니(魚得雲里, 於得里)	대전시 유성구(반포면) 안산동	
	어두니, 여드니(八十里, 八溪)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신영리	
	가느실(細谷)	연기군 전의면(소서면) 양곡리	
	가는골, 개눈골(細谷)	대전시 동구(의남면) 세천동	
	가는골(細洞)	대전시 유성구(서면) 세동 부여군 임천면(동변면) 구교리 논산시 가야곡면(갈마면) 산노리 공주시 유구읍(사곡면) 세동리 공주시 우성면(성두면) 대성리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녹천리	
	가능골(細洞)	대전시 중구(산내면) 석교동	
	가능골(細洞)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가느니(細洞)	공주시 우성면(우정면) 상서리	
	새실(細洞)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문금리	
	세줄(細洞)	공주시 탄천면(곡화천면) 덕지리	
	細洞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은룡리	
	긴골(者隱洞, 壹隱洞)	대전시 유성구(현내면) 복룡동	
	긴골(長洞)	대전시 대덕구(일도면) 장동	
	고듬티(直峙, 直峴)	청양군 청남면(청소면) 내직리	
	고든골(直洞)	공주시 계룡면(의구곡면) 내홍리	
	곧은골(高登이, 高登峴)	연기군 소정면(북면) 고등리	
	고도실(古道谷里)	공주시 신풍면(신하면) 산정리	
	돌파골(石花洞)	청양군 목면(목동면) 안심리	
	돌고지(芻串之里)	공주시 우성면(성두면) 대성리	
	亦古之里	부여군 부여읍(현내면)	
	꽃뫼(花山)	서천군 화양면(동하면) 용산리	
	꽃뫼(花山)	청양군 장평면(파아면) 화산리	
	꽃미, 매꽃미(花山, 梅花山)	논산시 채운면(화산면) 화산리	<p>* 평지 돌출의 선상 구릉 지형 반영</p> <p>* 채운들의 五花之地: 花山, 花亭, 龍花, 野花, 莘花(萬人可活之地로 인식됨)</p>
	고지말(花村)	서천군 화양면(동하면) 화촌리	
	花村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花枝面	논산시 화지동	
	꽃밭(花田洞)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배꽃(梨花里)	논산시 채운면(도곡면) 우기리	
	꽃정이(花亭)	논산시 채운면(도곡면) 화정리	
	용꽃(龍花)	논산시 채운면(화산면) 용화리	
	들꽃미(野花)	논산시 채운면(화산면) 야화리	
	매꽃미(山花)	논산시 채운면(화산면) 화산리	
	매꽃이(山花)	논산시 연무읍(전북 여산군 폐제면)	

		신화리	
신화(莘花)	논산시 연무읍(전북 여산군 피제면) 신화리		
두화(杜花)	논산시 연무읍(전북 여산군 공촌면) 봉동리		
장급(長串)	논산시 채운면(김포면) 장화리		
하천 곡류 지형	무드리, 물도리(水回里)	연기군 전동면(남면) 송성리	* 하천 곡류 지형 반영
	무도리, 무드리(水洞, 水回里)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용암리	* 回里(도리): 회를 받쳐 적은 사례
	무도리(水圖里, 水回里)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 圖里 · 島里: 도리의 음차 표기
	水島里	대전시 서구(하남면) 원정동	
	구불내(曲火川)	부여군 임천면(동변면)	
		공주시 탄천면(곡화천면 곡화천리) 광명리 일대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에 리명(里名)이 없는 지명은 해당 지명이 현재 소멸된 경우이며, 괄호는 1914년 이전의 면 지명임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산지와 하천의 분기 지형과 합류 지형을 반영한 지명들은 각각 ‘가르’ 계 지명과 ‘얼’ 계 지명으로 대별될 수 있다.⁷⁾ 그런데 하천의 분기 지점이 동시에 합류 지점을 임을 감안한다면 이 두 분류는 그곳에 거주하는 지명 언중들이 어떤 지형에 주목하여 그들 지명의 명명 유연성으로 삼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하천의 분기 및 합류 지점이 지명 언중들의 지명 인식에 의해 다양하게 달리 불리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가래울(楸洞, 楸木里)과 갈내(蘆川, 蘆川村, 蘆村)’ 등과 같은 하천의 분기에 주목한 ‘가르’ 계 지명이 분포하며, 동시에 ‘은골, 언골, 수문골, 어은골(隱谷, 隱洞, 漁隱洞, 魚隱洞, 於隱洞)’과 같이 하천이 합류하는 지

형에 주목한 ‘얼’ 계 지명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림 1).

곡지 지형으로는 ‘마근골, 막은골, 망골, 두메안(麻斤洞, 麻根洞里, 麻斤里, 莫隱洞, 馬斤吉介里, 杜谷里, 杜毛谷里)’와 같이 산지 내의 폐쇄적인 곡지 지형 내지는 소규모 분지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 지명들과 ‘가느설, 가는골, 가능골, 가능골, 가느느, 새설, 긴골, 고듬티, 곧은골, 고도설(細谷, 細洞, 耆隱洞, 長洞, 直峙, 直洞, 高登峴, 古道谷里)’ 등과 같이 선형(線形)의 곡지 지형을 반영하는 지명들이 분포한다.⁸⁾ 또한 ‘음지편, 山陰里, 어두니(魚得雲里, 八十里)’ 같이 곡지 및 산지의 북사면 지형을 반영하거나 적은 일조량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명들도 나타난다.

또한 공주목 진관 구역 내에는 평지로 돌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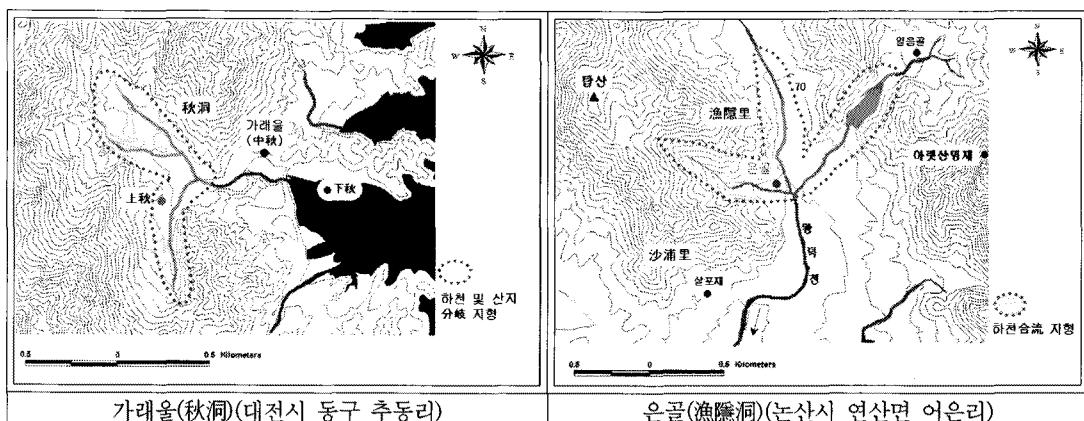


그림 1. 하천의 분기 및 합류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형 지명

선상 구릉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명들이 산지와 저기복 구릉지, 저습지 주변에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돌고지(巋串之里), 꽃뫼, 곶뫼, 꽃미(花山), 고지말(花村), 꽃밭(花田洞), 배꽃(梨花里), 용꽃(龍花), 들꽃미(野花), 매꽃미(山花), 장금(長串)’ 등과 같은 ‘꽃~고지~꼬지~꽃(花·華)’ 지명소를 가지는 지명들은 일부 산지 지형에서도 분포하나, 논산시 채운면·은진면·강경읍 일대, 서천군 화양면 일대와 같이 저습지 지형과 저기복 구릉지형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부분 발견되고 있다.⁹⁾

이들 지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채운들 가장 북쪽에 위치한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에 있는 ‘꽃미(花山)’는 산 지명으로 ‘梅花山’으로도 불리며 그 산 아래에는 촌락인 ‘매꽃미, 매풀미(山花)’가 위치한다(그림 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매꽃미, 매풀미’보다는 행정 지명인 ‘화산리’로 촌락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채운면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다. ‘매꽃미’의 남서쪽에는 채운면 야화리의 ‘들꽃미(野花)’ 마을이 있으며, ‘들꽃미’ 인근에는 ‘돌꽃(돌고개, 돌꼬지)’이 있는데 ‘돌꽃’ 들꽃으로 음운 변화가 되고 이것이 ‘野花’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들꽃미’ 남동쪽으로 채운면 용화리의 ‘용꽃(龍花)’이 자리 잡고 있다. ‘용꽃’을 원거리에서 조망하면 동쪽의 은진면 방축리에서 연결된 능선이 ‘용꽃’ 마을 뒤로 연결되어 마을 앞의 방축천까지 뻗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방축천 앞에서 멈춘 능선 끝부분을 이곳 주민들은 ‘용머리’라 부르는데 이를 통해 방축리에서 ‘용꽃’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용(龍)’의 형상으로 인식하였으며, ‘용 같이 평지로 길게 뻗은 꼬지’라는 의미에서 ‘용꽃(龍花)’이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용꽃’에서 남쪽으로 방죽천을 건너면 채운면 우기리 1구인 ‘배꽃(梨花)’ 마을이 있다. 배꽃 마을 입구에는 두 기의 기적비(紀蹟碑)가 세워져 있는데 비의 주인은 梨村 金炯日과 梨隱 金益權으로 이들의 號(梨村, 梨隱)는 촌락 이름인 ‘梨花’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촌락 구성원들에 의해 배꽃의 ‘이(梨)’가 동일시(identification)되어 궁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배꽃의 남쪽에는 채운면 화정리의 ‘꽃정이(花亭)’가 있으며, 현재 연중들은 ‘꽃정이’ 보다는 ‘화장말’이라는 변형된 한자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꽃정이 남쪽으로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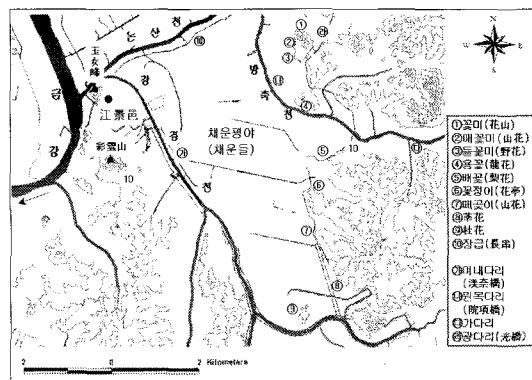


그림 2. ‘꽃~고지~꼬지 ~꽃(花)’계 지명의 분포
(충남 논산시)

무읍 신화리의 ‘매꽃이(山花)’와 ‘신화(莘花)’가 있으며, 이들 지명들은 촌락 주민들에 의해 ‘채운들 오화지지(五花之地)’의 하나로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의 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화 남서쪽 강경천 가에 위치한 연무읍 봉동리 ‘두화(杜花)’가 채운들 가장 남쪽에 ‘꽃~고지~꼬지~꽃(花)’ 지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평지로 돌출한 선상 구릉 지형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곶~고지~꼬지~꽃(花)’ 지명 주변에는 채운들(채운평야)이 자리한 논산시 채운면·은진면·강경읍 일대의 저습지 지형을 반영하는 교량 관련 지명들도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거 호남지방에서 경기도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했던 ‘미내다리’(渼奈橋, 1731년 건립)(채운면 삼거리 541)가 있으며, ‘미내다리’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방죽천 가에 ‘원목다리’(院項橋, 1990년 改建)(院項橋改建碑)(채운면 야화리)가 있다. 이 두 다리는 조선 시대 전라도와 강경에서 은진~노성~경기도로 연결되는 주요 육상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江景·沙浦~미내다리~짚은 삼거리~원목다리~들꽃미(野花里)’로 상호 연결되었다. 이 밖에도 은진면 토량리의 ‘가다리’와 채운면 화산 3리 매꽃미 인근에 있는 ‘광다리’(光橋, ‘광띠리’로 불림)가 있다.

이와 함께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하천의 곡류 지형과 관련된 지명도 발견된다. ‘무드리, 몰도리, 무도리, 무드리(水回里, 水回洞, 水圖里, 水島里), 구불내(曲火川)’ 등의 지명들은 산지 또는 저기복의 구릉 지형에서 하천이 곡류하는 공격 사면 및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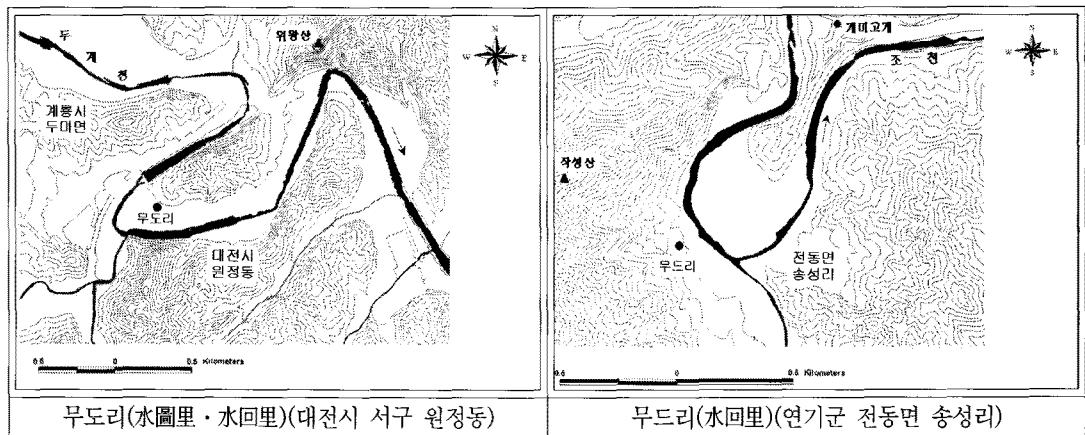


그림 3. 하천 곡류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명 지명

활주 사면에 해당 지명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명들은 곡류하는 하천 지형이 촌락 지명의 유연성을 제공한 경우이다(그림 3).

이상과 같이 공주목 진관 구역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지칭하는 지형 지명들에는 촌락이 위치한 주변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여 명명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촌락의 지형적 특징을 전부 지명소로 채택하여 다른 촌락과 변별되는 자연 지리적 특수성 내지는 수적(數的)인 개별성과 다름(otherness)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명들의 지형적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언중들의 지명 인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명 변천에 있어서도 강한 존속성을 보이고 있다. 지형 지명에 대한 언중들의 정확한 유연성 인식은 문화정치적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은골(隱洞)’ 등의 ‘얼’계 지명은 대부분 전부 지명소에 ‘은(隱)’자를 포함하고 있어 은일자(隱逸者)를 동경하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은둔 사상을 재현하는 지명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표 2. 지형 지명의 변천

지명	輿地 (1757~1765)	戶口 (1789)	舊韓 (1912)	新舊 (1917)	현재	비고
가래울	楸洞里	上楸洞里 下楸洞里	愁洞上里 愁洞中里 愁洞下里	秋洞里 秋上里 秋中里 秋下里	가래울, 秋洞(대전시 동구)	(楸: 가래의 훈차) (楸>愁)>秋)
	楸洞里	秋山里 秋下里	秋山里 秋下里	楸洞里	가래울, 楸洞, 楸洞里(서천군 화양면)	(楸>秋)>楸 (楸: 가래의 훈차 혹은 훈음차)
	.	楸洞里	上楸里 中楸里 下楸里	中楸里	가래울, 楸洞(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은골	漁隱洞里	漁隱洞里	隱洞	漁隱里	은골, 漁隱, 漁隱里(논산시 연산면)	
마근골	麻根洞里 莫斤洞堤-堤堰條	麻根洞里	麻斤里	.	마근골, 麻斤洞(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麻根·莫斤)>麻斤
음지편	隱地里	陰地里	山陰里	.	음지편, 山陰(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隱)>陰)>山陰)
여드니 (어두니)	八十里	八十里	八十里	.	여드니, 어두니, 八十里, 팔계(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어두니)>여드니>八十里·八溪

가느설	.	.	上細谷里 下細谷里	.	가느설, 細谷, 細洞, 上細谷, 下細谷, 봉 두미(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꽃미 (매꽃미)	花山-山川條 花山下橋-橋梁條 花山-古跡條 花山面	花山面	山花里 花山面	中里 (채운면)	꽃미, 매꽃미, 梅花山, 花山, 花山里(논 산시 채운면)	*花山面 (《東輿》) *채운면 中里 花山里(1935년)
들꽃미	下里	.	野花里	下里	들꽃미, 하리, 野花, 野花里(논산시 채 운면)	
용꽃	上里	上里	龍花里	上里	용꽃, 龍花, 상리, 龍花里(논산시 채운면)	
배꽃	梨花里	梨花里	梨花里		배꽃, 梨花(논산시 채운면 우기리)	
꽃정이	.	.	花亭里	花亭里	꽃정이, 花亭, 花亭里(논산시 채운면)	
장급	.	.	長串里	.	장급, 長꽃, 長花里(논산시 채운면)	
긴굽이 (장굽)	長串里	長串里	小長里 大長里	.	긴굽이, 장굽, 장급, 大長(논산시 성동 면 三湖里)	*인접한 채운 면에도 동일지 명 분포함(논산 천의 직강화)
무도리	.	水回里	.	.	무도리, 水圖里(대전시 서구 원정동)	(回)圖 (回: 돌 의 훈차) (圖: 도의 음차)
무드리	水回里-道路條	.	上水回里 下水回里	.	무드리, 무도리, 水回(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 주 : ‘비고’ 항목의 a > b - a에서 b로의 지명 및 지명영역 변화를 의미함

2) 방위 및 숫자 지명

지형 지명과 함께 자연적 지명에 포함된 지명으로 ‘방위 지명과 숫자 지명’이 있다. 행정 관청이 위치한 읍치소(읍기)를 중심으로 명명된 방위 지명은 조선 전기의 방위면(方位面) 지명에 다수 나타나며, 촌락 단위에서는 『輿地』와 『戶口』 기록에 ‘上里, 中里, 下里’가 석성현 비당면 등과 은진현 화산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촌락이나 山川 위치의 앞뒤(前後)를 표현하는 ‘뒷골, 뒷내’ 등의 지명들도 존재한다(표 3).

관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타 지명과의 변별성을 강조하는 숫자 지명은 일정한 면 지역을 행정 편의상 ‘東一面, 東二面 혹은 一里, 二里, 三里’ [은진현 김포면(『輿地』·『戶口』)]와 같이 단순 구분하여 명명 척도(nominal scale)처럼 표현한 지명을 말한다. 이들 방위 지명과 숫자 지명은 다른 촌락과의 달름과 개별성을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중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명명된 지명이 아니라 지방 행정 권력에 의해 외부적으로 강제되거나,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거주하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전후가 차별적으로 부여된

지명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방위 및 숫자 지명들은 『舊韓』, 『新舊』 기록을 거쳐 현대로 오면서 대체로 소멸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다만 전후를 나타내는 지명들 중 ‘뒷~’ 지명들은 해당 언중들에 의한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가능성을 잠재한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연적 지명들은 한편 문화정 치적 분석을 위해 기초적으로 논의된 아이덴티티의 분류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안계른(1985, 235)의 아이덴티티 구분(수적-질적-자아 아이덴티티) 중, 수적 아이덴티티(numerical identity)와 관련된 지명 명명은 하나의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지칭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말한다(김순배, 2009, 41-42). 사회적 주체에 의해 명명된 수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은 사회적 주체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수적 개별성과 자연지리적 특수성 및 달음을 강조하면서 명명한 지명들을 말한다.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수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지명으로 바로 지형 지명과 방위 및 숫자 지명을 포함하는 자연적 지명을 상정할 수 있다.

표 3. 방위 및 숫자 지명

분류	지명	현 행정구역	비고
방위지명	東上面	서천군 한산면 통남쪽	*연구 지역 내에 면 및 촌락 단위의 방위 및 숫자 지명 다수 분포함
	西部里	연기군 전의면(읍내면) 읍내리	*타 지명과의 구별을 통해 수적 개별 성과 다름을 지시함
	上里, 中里, 下里	부여군 석성면(석성현 비당면), 논산시 성동면(석성현 원북면, 정지면, 삼산면, 병촌면), 채운면 (은진현 화산면) 일대	*지방 행정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명명되어 지명의 유연성이 부재함 *후대로 오면서 대체로 지명 소멸됨
	뒷골(後洞)	청양군 정산면(대박곡면) 용두리	*정산 읍내의 뒤
		부여군 은산면(방생면) 홍산리	*금공리의 뒤
	띠울(後洞)	논산시 상월면(상도면) 대명리	*대촌리(궁골, 달미)의 뒤
	뒷골(後谷)	대전시 대덕구(현내면) 읍내동	*읍내동(잿들의 뒤)
	뒷텃골, 두텃골 (厚洞, 後洞)	논산시 채운면(도곡면) 심암리	*원심암의 뒤
	뒷말, 뒷골, 인저원, 두미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넓은배의 뒤
	뒷개(北浦)	부여군 부여읍(현내면) 쌍복리	*부여 읍내의 뒤
	뒷내(後溪)	공주시 의당면(요당면) 청룡리	*곰내, 곰재, 뒷목(모촌리 띠울의 뒤)
	뒷내(後川)	공주시 탄천면(진두면) 복룡리	*쌍계 입구로 복룡 뒤의 내
	앞실(前谷)	논산시 은진면(성본면) 남산리	*남산(생매)의 앞
숫자지명	一里, 二里, 三里	논산시 강경읍(은진현 김포면) 일대	*지방 행정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명명되어 지명의 유연성이 부재하며, 후대로 오면서 대체로 지명 소멸됨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의 괄호는 1914년 이전의 면 지명임

3. 사회적 지명

지명의 명명 유연성이 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소속을 재현하는 경우, '사회적 지명'으로 분류된다.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사회적 지명들에는 특정한 종족 촌락임을 나타내는 종족촌 및 산소 관련 성씨 지명과 군현 경계 지역에서 소속 군현을 전부 지명소로 표기한 군현명 표기 지명이 있다.

대체로 사회적 지명들은 문화정치적 속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지명 의미를 둘러싼 사회적 주체 간의 경합과 갈등 양상에 주목하는 문화정치적 지명 연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지명들은 수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자연적 지명과는 달리 내부적 동일성이나 같음에 주목하여 형성되는 질적(質的)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질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사회·이념적 지명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향하고 소속되는 가치 체계와 공동체의 특성을 대변하며, 사회적 주체의 소속과 이들이 속해 있는 집단적인 특성을

표상하고자 할 때 명명된다(김순배, 2009, 42). 질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사회·이념적 지명들은 장소와 사회적 주체의 소속감이 연계될 때 자연스럽게 장소 아이덴티티와 영역적 아이덴티티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주체가 속한 소속 집단의 특성과 가치 체계,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지명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상층민들에 의해 두드러지게 생성되고 재현되었다.

1) 성씨 지명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사회적 주체들의 사회적 소속을 지칭하는 다수의 성씨 지명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성씨 지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지배적 계층이었던 지방의 사족들과 일정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 후기 사족으로 대표되는 이들 지배층들은 양란의 혼란기를 수습하는 17세기 중반 경을 거치면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예학 보급과 충효열의 현창,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종족 내부의 혈연적 결속과 종족 의식(부계 적장자 중심의 종법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종족 촌락의 형성을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특정 종족 중심의 촌락 공동체를 대내외적으로 지칭하고 과시하기 위해 종족의 성이나 본관(관향) 명칭을 종족촌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祖先) 분묘의 수호와 종족의 영역성 재현을 위해 산소 이름 앞에 전부 지명으로 성관(姓貫) 명칭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명들을 본 연구는 성씨 지명이라 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공주목 진관 구역 내에 약 54개의 성씨 지명이 분포하고 있다.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54개의 성씨 지명들 중 9개는 종족촌 관련 지명이고 나머지

45개 지명은 특정 종족의 산소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이들 지명 중 14개(25.9%) 만이 소멸되고 나머지는 존속되고 있어 대체로 강한 존속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주체의 소속을 지칭하면서 대체로 강한 존속성을 보이고 있는 성씨 지명은 타 종족과 경합하는 장소 아이덴티티(place identity)와 영역성(territoriality)과 관련된 문화정치적인 속성도 내재하고 있다. 성씨 지명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장소 아이덴티티를 재현하여 일정한 영역과 영역성을 지시하고 강화해 주는 영역적 아이덴티티(territorial identity)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경향의 주요 사족들은 자신들의 성씨 명칭을 거주지, 선산, 연고지 명칭 앞에 전부 지명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소 아이덴티티를 재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명을 통해 지

표 4. 성씨 지명

성씨 지명	현 행정구역	지명의 유연성 및 사회적 관계
宋村	대전시 대덕구(내남면) 송촌동	*恩津 宋氏 종족촌
姜村,閔村,李村	대전시 대덕구(일도면) 삼정동	*晋州 姜氏, 驪興 閔氏, 慶州 李氏 종족촌
박독골,손독골(道洞)	대전시 서구(유등천면) 도마동	*忠州 朴氏와 密陽 孫氏의 종족촌
洪哥洞(홍가골)	부여군 세도면(인의면) 가회리	*洪佳洞(홍기굴)(『朝鮮』, 1911년)
柳哥洞,柳洞	부여군 세도면(인의면) 귀덕리	*榆哥洞(유가울진)(『朝鮮』, 1911년)
成街洞 (성가작골,신성)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咸氏 종족촌
新林	연기군 서면(복삼면) 기룡리	*平澤 林氏들이 새로 만든 마을
銀洞,尹洞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坡平 尹氏 종족촌
尹里,得尹里	논산시 광석면(득윤면) 득윤리	*과평 윤씨 종족촌
徐川内,徐奮洑	논산시 가야곡면(상두면) 육곡리	*扶餘 徐氏와 관련
金山所,金山	연기군 금남면(양아리면) 장재리	
宋山里	대전시 서구(유등천면) 도마동	
	대전시 유성구(천내면) 구성동	
	공주시(우정면) 월미동	
宋山所里(송산소,송산)	공주시(남부면) 금성동	*은진 송씨의 산소가 있음
老山所里,老谷	연기군 동면(동이면) 응암리	*蘆山소골
崔山里	계룡시 남선면(식한면)	
韓山所里 (한산소,한산수)	공주시(남부면) 웅진동	*청주 한씨의 산소가 있음
郭山所	대전시 중구(산내면)	
閔山所	공주시 반포면	
大柳山洞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대박리	*晋州 柳氏의 산소가 있음
柳山所	연기군 금남면(반포면) 영곡리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대교리	*晋州 柳氏의 산소가 있음
柳山里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송학리	
	공주시 계룡면(의구곡면) 중장리	*文化 柳氏 柳兵使의 묘소가 있음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南山所,南山里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 조선 인조 때 좌의정 南以雄의 산소가 있음
李山所里	공주시(목동면) 주미동	
	대전시 유성구(구즉면)	
李山所	공주시 반포면	
李山所,李山洞	연기군 남면(삼기면) 종촌리	* 草廬 慶州 李惟泰의 산소가 있음
尹山所	연기군 금남면(반포면) 영곡리	
	공주시 의당면(요당면)	
尹山所,尹山里,尹山	공주시 탄천면(반탄면) 성리	* 파평 윤씨의 산소가 있음
權山所	공주시 장기면(삼기면)	
池山所	공주시 우성면(우정면)	
成山所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달전리	* 매죽헌 成三間의 사당이 있음
朴山所	공주시 이인면(목동면)	
	연기군 금남면(양아리면)	
朴山里,朴山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박산리	* 高靈 朴氏의 산소가 있음
朴山所里 (박산소, 박산수)	공주시(남부면) 응진동	* 密陽 朴氏 산소
申山里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용암리	
申山里,申山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대박리	
申山里,申山所골	공주시 이인면(반탄면) 달산리	* 조선 효종 때 예조참판 竹堂 申濡의 산소가 있음
鄭山里,鄭山所,鄭山	공주시 이인면(반탄면) 달산리	* 延日 鄭氏가 세거함
吳山里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용암리	
具山里(군졸)	공주시 의당면(의랑면) 가산리	
龜山里	공주시 정안면	
沈山里,沈山	공주시 정안면	
	공주시 우성면(우정면) 귀산리	* 青松 沈氏의 산소가 있음
趙山里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趙山所里,趙山所,山所里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명곡리	
姜山里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姜山洞,姜山所,姜山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봉안리	* 晉州 姜氏의 산소가 있음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의 팔호는 1914년 이전의 면 지명을 뜻하며, 리명이 기록되지 않은 지명은 해당 지명이 현재 소멸된 경우임[전체 54개(종족촌 관련 지명 9개+산소 관련 지명 45개) 중 14개 지명이 소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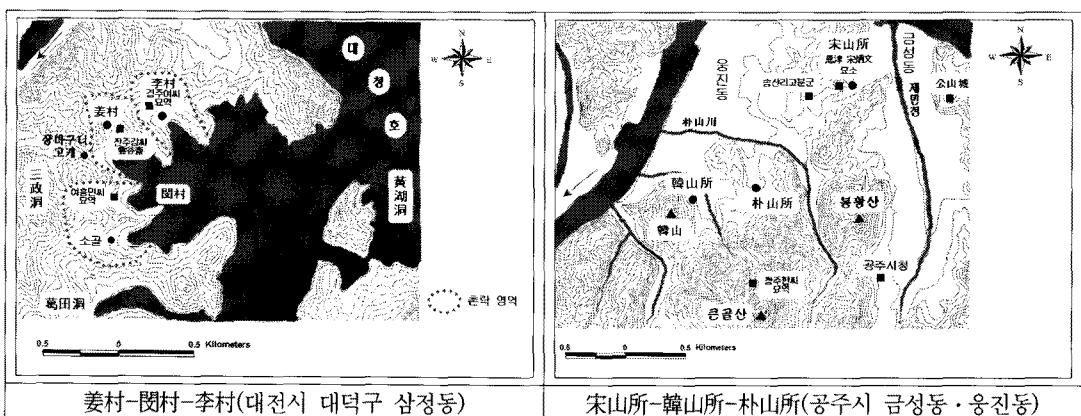


그림 4. 성씨 지명의 위치와 영역

명만 보고도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씨 관련 지명들은 사회적 주체의 자발적인 의도로 자신들의 지명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변에 거주하는 타자가 그곳을 타자의 장소와 구별하기 위해 생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성씨 지명들의 생성과 변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 종족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는 사례 분석을 통해 지명이 바로 사회적 주체의 장소 아이덴티티 재현과 영역성 형성에 일정한 인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주목 진관 구역에 분포하는 성씨 지명 중 장소 아이덴티티 재현과 영역성 강화와 관련된 문화정치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종족촌 명칭과 종족 관련 산소 지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종족촌 관련 성씨 지명의 사례로 ‘姜村(晋州 姜氏)’, ‘閔村(驪興 閔氏)’, ‘李村(慶州 李氏 菊堂

公派)’이 있다(그림 4).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에 위치한 이들 성씨 지명들은 서로 인접하면서 각기 상이한 종족들의 장소 아이덴티티와 영역성을 재현하고 있다. 이 세 촌락은 해당 촌락에 거주하는 지배적 종족의 성씨 명칭을 붙여 지명이 생성된 것으로 지명의 유연성을 제공한 종족촌이 각각 형성되어 있으나, 1980년 완공된 대청댐 건설로 인해 전통적 촌락경관이 일부 변형되어 존속되고 있다. 세 촌락 모두 마을 앞 가까이까지 대청댐 호수로 잠겨 있어 경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며, 새로운 호수 경관이 생기면서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상업적 토지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 촌락이 위치한 ‘삼정동(三政洞)’의 지명 유래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하나는 이곳 주민들의 생업이 주로 山田을 일구어 살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山田골’이라 불러 오다가 그 표기가 ‘삼정동’으로 변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촌락의 풍수 지리와 관련하여 이 마

표 5. 성씨 지명과 군현명 표기 지명의 변천

지명	輿地 (1757~1765)	戶口 (1789)	舊韓 (1912)	新舊 (1917)	현재	비고
삼정골	三亭洞[《海東》 (18세기중반)]	三岐里	三政上里 三政中里 三政下里	三政里	삼정골, 姜村, 閔村, 李村, 三政洞(대전시 대덕구)	(亭)岐>政)(岐: 政의誤記) *三政上里(장촌, 민촌) *三政下里(이촌) *진주 강씨, 여흥 민씨, 경주 이씨 관련 지명
신림	新林里	新林	新林里	·	新林(연기군 서면 기룡리)	*평택 임씨 관련 지명
송산소	宋山所里	宋山所里	宋山里	·	宋山所, 宋山(공주시 금성동)	*온진 송씨 관련 지명
한산소	韓山所里	韓山所里	韓山里	·	韓山所, 한산수, 韓山(공주시 웅진동)	*청주 한씨 관련 지명
박산소	朴山所里	朴山所里	朴山里	·	朴山所, 박산수(공주시 웅진동)	*밀양 박씨 관련 지명
대유신동 (웃말)	·	柳山所	大柳山洞	·	웃말, 상촌(연기군 금남면 대박리)	*지명 소멸됨 *진주 류씨 관련 지명
박산	·	朴山所	朴山里	朴山里	박산, 朴山里(연기군 금남면)	*고령 박씨 관련 지명
오구미 (노오리)	五丘山里	五岳山里	魯五里	·	오구미, 鱻龜山, 梧山, 龜山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魯城縣 下道面 소속 (五丘>五岳>魯五>鼉龜·梧)
오구미	五口山里	五丘山里	上梧山洞	梧山里	오구미, 鱻龜山, 梧山, 龜山, 梧 山里(논산시 연산면)	*連山縣 白石面 소속 (五口>五丘>梧山·鼉龜)

을의 지세가 세 정승이 나올 명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三政谷, 三政洞’이라 명명 했다는 설이다.¹¹⁾ 그런데 지명 변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때 본래의 고유 지명은 ‘산전골’이며 이를 음차 표기한 지명으로 ‘三亭洞>三政洞’이 파생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요 사족들의 이거와 함께 조상 분묘의 조성 과정에 풍수설이 개입되면서 후자의 지명 전설이 표기자를 풍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삼정동은 《海東地圖》(18세기 중반)의 기록(‘三亭洞’)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舊韓』(1912) 기록에는 ‘三政上里(강촌, 민촌), 三政中里, 三政下里(이촌)’로 등재되어 촌락이 분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산전골과 삼정동 지명의 생성 순서에 대한 선후 논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삼정동 지명의 생성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순수한 자연 환경으로서의 지명 유연성(산전골)을 대체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외부의 의도나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전골이란 지명이 풍수적으로 해석되는 순간 여기에는 주요 사족들의 명당과 영역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개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삼정동 내부에는 성씨 지명인 세 촌락지명이 분포하고 있다. 우선 신탄진에서 넘어오는 장바구니 고개의 북쪽, 즉 이촌의 남서쪽에 위치한 ‘강촌’은 400여 년 전부터 晉州 姜氏가 세거해 온 곳으로 전체 20여 호 중 약 15호가 진주 강씨이다. 강촌은 이촌이나 민촌보다 높은 곳에 있어 ‘윗말(웃말)’이라고도 불리며 조선 밀기에는 행정구역상 ‘三政上里’에 속해 있었다. 강촌 마을의 중심에는 ‘雲谷齋’라는 재실이 있으며, 강촌으로 넘어가는 장바구니 고개 옆으로는 ‘雲谷姜先生行狀碑’와 ‘晉州姜公熙文頌德碑’가 있다. 진주 강씨의 회덕 입향조는 1500년대 초반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진 강문한(1464~1547)으로 강문한의 처가 光山 金氏인 것으로 보아 처향을 연고로 회덕에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산 김씨는 현재의 유성구(옛 회덕 현 서면) 전민동 일원에 沙溪 金長生의 3자이자 憲獨齋 金集의 아우인 虛舟公 金槃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진주 강씨의 주요 거주지는 현재의 대덕구 신탄진동과 석봉동, 용호동, 삼정동 등 회덕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삼정동 강촌을 비롯한 회덕 북부에 세거하고 있는 진주 강씨는 조선시대 회덕현의 주요 사족으로 조선 전기에는 ‘남송북강(南宋北姜)’이라 회자될 만큼 회덕 남쪽의 은진 송씨를 능가하면서 향권을 주도하다가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은진 송씨나 다른 사족들에 비해 그 족세가 축소된 종족이다.¹²⁾ 조선 시대 색목(色目)에 있어서 진주 강씨는 남인 계열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계의 주요 종족인 은진 송씨와 향촌 지배 및 향권 장악에 있어 대립적으로 존속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향촌 사회에서의 강촌의 지위는 예전보다 상승되지는 않았으나, 삼정동 일대에 자신들의 장소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성씨 지명을 생성해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만큼 일정한 영역성을 소유하고 있다.

강촌에서 남동쪽으로 600m 부근에 있는 ‘민촌’은 200년 전부터 여흥 민氏가 세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촌이란 지명 외에 선비가 공부하던 재실이 있다 하여 ‘재실말’이란 경합 지명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민촌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 되면서 1979년 마을 전체가 ‘소골(牛谷)’로 이주하였다. 소골에는 약 25호 정도가 살고 있으며 그 중 민씨는 6호이며 나머지는 타성과 최근에 이주한 외지인들이다. 여흥 민씨와 관련된 종족 경관으로는 산소골에 있는 여흥 민씨 선조 묘소와 강촌 입구로 이전한 재실이 남아 있다. ‘산소골’의 여흥 민씨 산소에는 여흥 민씨 회덕 입향조인 閔沖源(15세기 인물, 묘소: 유성구 도룡동 虎洞)의 아들 閔粹(15세기 인물)와 손자 閔龜孫(1464~1522) 등의 묘소가 있다. 삼정동 민촌의 여흥 민씨는 회덕 입향지인 현 유성구 도룡동의 호동과 긴밀한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호동(부엉골)에는 민충원 내외의 묘소와 함께 민충원의 모친이면서 여흥 민씨가 회덕에 입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磨山 宋氏의 묘소가 있다.¹³⁾

여흥 민씨가 삼정동 민촌에 거주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본 연구는 여흥 민씨 선대 묘소의 위치에서 찾았다. 회덕에 입향한 여흥 민씨는 그 본거지를 현 유성구 도룡동에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선대 묘소를 명당으로 알려진 이곳 삼정동에 정하면서 여흥 민씨의 일부 지파가 민촌으로 이거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인접한 강촌의 진주 강씨가 남인 계열의 당색을 보인데 반해 민

촌의 여홍 민씨는 은진 송씨와 혈연적,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서인 노론계 집안이었다. 이러한 색목의 차이는 촌락 형성 초기 강촌과 일정한 갈등적 사회관계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짐작되며, 강촌과 구분되는 장소 아이덴티티와 영역성을 나타내기 위해 ‘민촌’이란 성씨 지명을 생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촌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촌’은 강촌을 기준으로 고개 너머에 있다 하여 ‘넘말’, 또는 강촌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 하여 ‘아랫말’로 불린다. 이촌은 慶州 李氏 菊堂公派의 종족촌이었으며 현재는 10여 호 중 경주이씨가 약 3호 정도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북쪽 산사면에는 선조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종족촌의 상징경관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촌은 강촌과 민촌에 비해 조선 후기 향촌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정은 강촌보다 지대가 낮아 아랫말로도 불리웠다는 사실에서 당시 강촌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¹⁴⁾ 그러나 경주이씨 국당공파는 강촌, 민촌과 대등하게 그들과 구별되는 성씨 지명인 이촌을 생성하고 통용시킴으로서 삼정동 일대에서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장소 아이덴티티, 나아가 영역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접한 세 성씨 지명은 현재까지 각 종족의 장소 아이덴티티와 영역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일정한 경계와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성을 강화시키면서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목 진관 구역의 성씨 지명들 중에는 종족 구성원들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 지명 유연성을 제공하던 종족촌과 관련 촌락 경관들이 사라진 경우도 있어 그 존재 양상은 다양하다.¹⁵⁾

종족촌을 반영하는 성씨 지명과 함께 특정한 종족 집단의 성관을 지명에 결합시킨 산소(山所) 관련 성씨 지명들이 있다. 보통 산소 이름 앞에 전부 지명소로 특정 종족의 성을 표기한 이러한 지명들은 조선 후기 사족 가문들의 종종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조선 후기 지방의 유력 사족들은 선조의 묘전 건립, 묘지명 작성, 묘표 건립, 재실 전립 등의 봉선사업과 종중규약, 종계 제정을 통해 종족 집단 내의 혈연 결속과 향촌 지배

를 강화해 나갔다(이정우, 1997). 이러한 사족들의 종종 활동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주목 진관 구역 곳곳에 많은 산소 관련 지명들을 낳았다. 이들 지명들은 대체로 일부 표기 변화를 동반하면서 존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종족촌의 쇠퇴와 묘소의 이전 등으로 인해 지명이 아예 소멸하거나 지명만이 존속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던 산소와 종족 구성원들은 사라진 경우도 있어 그 존재 양상은 다양하였다.¹⁶⁾

일례로 충남 공주시 금성동과 웅진동에는 특정 종족의 선조 묘역이 있는 곳임을 지칭하면서 그들의 영역성을 나타내 주는 ‘송산소(宋山所)’, ‘한산소(韓山所)’, ‘박산소(朴山所)’라는 성씨 지명들이 있다(그림 4). 이들 지명들은 ‘산소’라는 후부 지명 소 앞에 묘소를 조성한 특정 종족의 성씨를 전부 지명소로 결합하여 명명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들 송산소, 한산소, 박산소에는 현재 묘소를 조성한 종족의 종족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박산소는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제공한 ‘朴氏 山所’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상태이다.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송산소(宋山, 宋山里)’는 恩津 宋氏의 산소가 조성된 후 생성된 지명이다. 현재 행정 지명으로서의 ‘송산리’는 금성동으로 대체된 상태이며 ‘송산소, 송산’이란 지명은 마을 주민들의 사적인 일상 대화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공주 중학교의 남서쪽에 위치한 송산소는 현재 공주시의 도시화 확장으로 과거보다 호수가 증가된 상황으로 외지인의 이주가 증가하고 촌락 경관이 도시의 주택 경관으로 변형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약 30여 호로 구성된 송산소는 각성 바지 마을로 은진 송씨의 묘소가 조성된 이후에도 은진 송씨의 거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종족촌 형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산소의 주인공은 은진 송씨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의 손자인 宋炳文(17세기 인물)과 그 처인 牛峰 李氏이다. 송병문의 묘소 아래로는 아직까지 재실인 유전재(柳田齋)가 있으며 유전재 아래로 산소와 유전재를 관리하는 산직집이 있다.¹⁷⁾

현재 마을 주민들 중 이곳에서 생장한 사람들은 송산소와 송산의 마을 유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앞으로 외지인들의 증가와 산소 관리의 혀술로 송산소(송산, 송산리)란 지명의 내력이 사

라질 가능성이 높다. 단 일제 시대와 1971년에 송산소(송산리) 부근에서 무녕왕릉과 백제고분들이 발견되었고 그 유적의 명칭으로 ‘公州 宋山里 古墳群(금성동 산5-1)’이 사용되면서 행정적인 지명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산소에서 송산리고개를 넘어 1km를 가면 웅진동의 봉황산 북서 사면으로 ‘한산소’와 ‘박산소’가 있다. ‘한산소(한산소리, 한산수)’란 지명은 清州 韓氏의 산소가 주미산과 우금치와 연결된 큰골 산 북서 산록 중턱에 조성되면서 명명된 것이다. 조선 시대 암행어사를 지냈다는 산소의 주인공은 아직 정확하게 그 신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자손들이 묘소 서쪽의 한산소에 3~4호 거주하다 현재는 산소를 제외한 그 외의 종산과 종토 모두를 처분하고 30년 전에 마을을 모두 떠났다. 그러나 한산소 마을의 뒷산의 명칭이 ‘두리봉’과 함께 ‘한산(韓山)’으로 현재도 불리고 있으며,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동자 장승 1기, 바위 1기)으로 인해 ‘장승배기’로도 지칭되기는 하나 ‘한산소(한산수)’란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청주 한씨가 거주하지 않는 한산소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공주시의 도시 확장이 현재 웅진동 박산소 부근까지만 진행되어 아직 촌락경관이 남아 있고 촌락 구성원의 변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산소와 인접한 ‘박산소’는 현재 청실(경일) 아파트 뒤에 密陽 朴氏의 묘소가 조성되면서 명명된 지명이다.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40번 국도의 4차선 확장,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과 상업 시설, 보육시설(웅진어린이집) 등이 혼재해 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박산소의 지명 유연성을 제공한 산소가 공주시 무릉동(무른들)로 이장되고 2007년 도에는 주변 종산도 모두 분할 매각된 상황이다. 그러나 박산소란 지명은 일부 지명 언중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하천 명칭도 공주시에 의해 ‘박산천(朴山川)’으로 지정되어 통용되고 있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송산소, 한산소, 박산소는 1km 반경에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면서 특정 종족의 장소 아이덴티티 재현과 영역성을 강화해주던 지명들이다. 지명의 전부 지명소로 사용된 성씨 명칭(宋, 韓, 朴)과 후부 지명소로서의 ‘산소’가 결

합된 지명을 통용시키면서 이곳에 ‘누구의 산소가 있는가’를 지칭해주는 동시에, 주변 타자들에게 특정한 ‘산소’ 영역에 대한 대외적인 표시로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서 처리한 소송의 대부분이 사족 간 벌어진 ‘산송(山訟)’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지명의 기능과 종족에 의한 장소 아이덴티티 재현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명에는 지명을 생성시킨 사회적 주체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명명 유연성을 제공하던 산소마저 사라지고 없어 지명 존속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⁹⁾

2) 군현명 표기 지명

성씨 지명과 함께 사회적 주체나 집단의 사회적 소속을 지칭하는 군현명 표기 지명이 있다. 연구 지역 내에 존재했던 조선시대 13개 군현의 경계에는 인근 군현과의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촌락 지명의 전부 지명소로 군현의 명칭을 표기하던 지명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은 촌락이 소속된 군현을 타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어 해당 촌락의 사회적·행정적 소속을 재현해 준다. 〈표 6〉에 제시된 군현명 표기 지명들은 대체로 군현 간 경계에 위치하거나 인클레이브(enclave) 형태로 타 군현의 영역 내에 고립되어 위치한다. 특히 ‘공주 말(公州洞)’과 ‘淸州별밀’의 지명은 각각 공주목의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였던 산내면과 인근 회덕현과의 경계, 청주목의 월경지(越境地)였던 덕평면과 천안군, 전의현과의 경계에 있으면서 읍치소와 원거리에 있는 해당 군현 촌락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관리(호구, 전결, 부세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속 군현명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군현명 표기 지명의 일반적 특징과 문화정치적 속성을 ‘노성편(魯城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오구미에 있는 ‘노성편’이란 지명은 한때 ‘노성의 오구미’란 의미의 ‘노오리(魯五里)’로 표기되기도 했으며,²⁰⁾ 과거 노성현과 연산현의 경계에 위치하여 그들의 군현 소속을 지칭하는 질적 및 장소 아이덴티티를 재현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오구미는 노성현과 연산현에 걸쳐 분포하던 마을로 『輿地』

표 6. 군현명 표기 지명

지명	현 행정구역	지명의 유연성 및 사회적 관계
公州 말(公州洞)	대전시 동구(산내면) 삼괴동	* 공주목-회덕현 경계
扶餘頭里, 扶頭里	부여군 규암면(천을면) 부여두리	* 부여현-홍산현 경계
連山埜(성검들, 상성)	논산시 은진면(적사곡면) 성평리	* 연산현-은진현 경계
恩津埜(하성검)	논산시 은진면(송산면) 성평리	* 은진현-연산현 경계
魯城厓(魯五里)	논산시 연산면(하도면) 오산리	* 노성현-연산현 경계
石城 말(石城村)	부여군 부여읍(북면) 현북리	* 석성현-부여현 경계
定山한치(大峙)	청양군 정산면(임면) 마차리	* 정산현-청양현 경계
公州長善이	공주시 탄천면(곡화천면) 장선리	* 공주목-노성현 경계
魯城長善이	논산시 노성면(화곡면) 호암리	* 노성현-공주목 경계
公州甲坡	공주시 신풍면(신하면) 봉갑리	* 공주목-청양현 경계
青陽甲坡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 청양현-공주목 경계
청주별말(坪里)	연기군 소정면(청주군 덕평면) 소정리	* 청주목 덕평향(청주목 덕평면) 소속 월경지 (청주목-천안군-전의현 경계)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의 괄호는 1914년 이전의 면 지명임

(1700년대 중반) 기록에 노성 오구미는 '五丘山'으로, 연산 오구미는 '五口山'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표 5).²¹⁾

이곳은 단순한 행정구역 경계라는 의미를 넘어 조선 후기 서인 노소론 분당과 대립의 경계(border)이기도 했다. 노성편 동쪽 마을인 안말에는 소론인 노성 坡平 尹氏에 의해 1702년에 건립된 龜山書院(尹煌, 尹元舉, 尹舜舉 배향)의 유지가 있는 곳으로 당시 노소론 간의 치열한 대립의 최전선이기도 하였다. '구산(龜山)'이란 명칭은 오구미가 표기 변화되어 파생된 것으로 노성현 쪽에서 통용되던 한자 지명이며, 이와는 달리 같은 오구

미에서 유래한 '오산(梧山)'이란 지명은 연산현에서 통용되던 지명이었다. 이후 노성편과 안말 또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노성군 하도면 '魯五里'에서 논산시 연산면 '梧山里'로 통폐합되어 [〈魯城郡面廢合地圖〉(1914년)] 마을의 공식적인 행정리 명칭으로 '오산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마을 회관도 과거 연산현 영역인 오구미 새터에 있다 (그림 5). 현재 노성편의 연산면 오산리 편입이라는 결과는 조선 후기 노소론 간의 문화정치적인 영역 경합에서 노론이 우세 속에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오산리는 전체적으로 光山 金氏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구산서원이 있었던 안말에는 파평 윤씨가 2호 거주하다 현재는 빈집이 되었다.

4. 경제적 지명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분류의 마지막 유형으로 '경제적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지명은 산업 지명과 상업 지명으로 하위분류되며, 전산업 시대에 특정한 하층민들이 거주하던 각종 생산과 서비스와 관련된 지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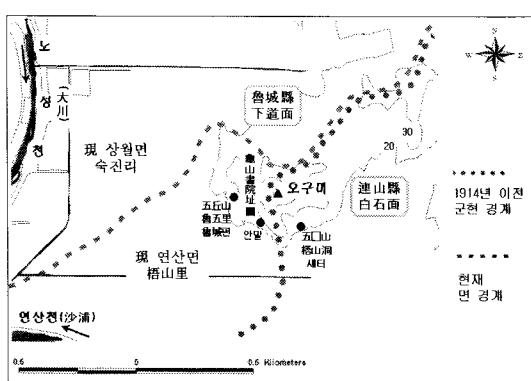


그림 5. 노성편의 위치와 행정 경계의 변화

1) 산업 지명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과거 일용품을 생산하던 곳이 지명 형태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표 7). 과거 사·농·공·상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하층민을 구성하던 공장인(工匠人)들은 일정한 촌락을 형성하여 특정 상품을 생산하였다.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이들이 생산하던 상품의 명칭이 전부 지명 소로 표기되거나 혹은 지명소에 ‘~店’, ‘店~’이라는 표기자가 부가된 형태로 잔존하는 산업 지명들이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갓점(笠店, 冠洞), 점골, 점굴(店洞), 점말(店村), 갖점(皮里, 皮村), 피

촌말, 皮匠里, 白丁村, 南山白丁, 匠人村, 甲破店, 鑰店里, 鑰匠里, 쇠점(鐵店, 水鐵店), 무수점, 불무실(冶室, 野室), 불못골(冶谷), 지장골(紙匠里), 외약골, 옛골(瓦洞, 五也洞), 沙器店里, 사구시(沙器所), 질울(陶谷), 재장골(自店洞), 瓮店 등은 장인들이 생산하던 상품 명칭이나 그러한 생산지를 지칭하는 ‘점(店)’이라는 지명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白丁村(白丁: 도살업자), 甲破店[갓바치·靴鞋匠: 조선 시대에 목이 있는 가죽 신발인 화(靴)와 목이 없는 가죽 신발인 혜(鞋)를 제작하는

표 7. 산업 지명

산업 지명	현 행정구역	지명의 유연성 및 사회적 관계
갓점(笠店)	청양군 청남면(장촌면) 대홍리 대전시 동구(일도면) 효평동	*조선 후기 하층의 특수 장인 신분이 거주함
갓고개(冠峴)	청양군 장평면(관면) 관현리	
갓점(冠洞)	서천군 기산면(서하면) 황사리	
증골(笠店, 店洞)	논산시 가야곡면(하두면) 삼전리	
笠店里	부여군 부여읍(북면)	
점골(店洞)	청양군 목면(목동면) 대평리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店村	대전시 유성구(현내면) 구암동	
	논산시 채운면(화산면) 화산리	
	공주시 사곡면	
점골, 점굴(店洞, 店里)	부여군 임천면(신리면) 점리	
점말(店里)	부여군 장암면(박곡면) 점상리	
점말(店村)	공주시 계룡면(의구곡면) 하대리	
	공주시 계룡면(진두면) 상성리	
	연기군 금남면(양야리면) 발산리	
	공주시 탄천면(곡화천면) 덕지리	
皮里	청양군 장평면(피아면=관면)	
	논산시 성동면(삼산면)	
갖점(皮里)	부여군 석성면(현내면) 정각리	
皮村	대전시 유성구(현내면)	
피촌말, 피천말, 碑선말 (披村)	청양군 정산면(읍내면) 서정리	*30년 전 백정이 살던 마을로 현재는 모두 타지로 이주함 *이후 비선말로 지명이 변경됨
皮匠里	논산시 성동면(정지면)	
	논산시 성동면(삼산면)	
白丁村	연기군 동면(동일면)	*하층의 특수 신분인 백정이 거주하던 곳
白丁村里	연기군 남면	
南山白丁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남곡리	*200년 전에 白丁 3~4호가 거주하여 남산백정이라 하였으며, 백정의 묘비가 있었음
匠人村	대전시 대덕구(근북면)	
	논산시 채운면(도곡면)	
갑파니, 갑파 (甲破店, 甲破里)	공주시 신풍면(신하면) 봉갑리	*갓바치 마을

鎰店里	연기군 전의면(대서면)	
柳器店里	공주시 정안면	
鎰匠里	부여군 부여읍(대방면)	
쇠점, 쇠골(鐵店)	대전시 서구(상남면) 봉곡동	
쇠점(鐵店, 水鐵店)	논산시 상월면(상도면) 상도리	
鐵店里	공주시 정안면	
무수점, 무시점	서천군 마산면(하북면) 시선리	*무쇠점이 있던 곳
水鐵店	대전시 유성구(현내면)	
	공주시 이인면(진두면)	
水鐵店里	공주시 정안면	
水鐵里, 水鐵里	부여군 은산면(방생동면)	
불무실(冶室, 野室里)	대전시 서구(상남면) 봉곡동	
불못골(冶谷)	공주시 탄천면(반탄면) 대학리	
治谷里	공주시 계룡면(진두면) 월곡리	
지장골(紙匠里)	부여군 장암면(신리면) 지토리	
외약골, 왓골(五也洞, 瓦洞)	공주시(남부면) 웅진동	*기와점이 있던 곳
사점(沙器店村)	청양군 정산면(잉화달면) 마치리	
沙器所里	연기군 전의면(소서면) 금사리	*고려시대 아래로 사기소를 두고 그릇을 만들던 곳(현재 농촌테마마을 연기금사가마골이 운영됨) *위사기소와 아래사기소로 분동됨
	논산시 양촌면(양량소면) 신기리	*위사기소(上沙里)와 아래사기소(下沙里)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지명 존속
沙器店里	논산시 벌곡면	
사구시(沙器所, 沙器店)	공주시 유구읍(신상면) 입석리	*지명 존속
사기정골(沙器店골, 沙川)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금암리	
질울(陶谷)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질그릇점이 있던 곳
재장골(自店洞)	청양군 정산면(잉화달면) 마치리	*甕器店이 있던 곳
瓮店	공주시 우성면(성두면)	
瓮店里	부여군 초촌면	
	부여군 부여읍(북면)	
	부여군 은산면(공동면)	
	부여군 규암면(송원당면)	
	계룡시 염사면(두마면)	
	계룡시 남선면(식한면)	
역말(驛村)	청양군 정산면(읍내면) 역촌리	*榆楊驛이 있던 곳
	서천군 기산면(서하면) 화산리	*新谷驛이 있던 곳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廣程驛이 있던 곳
역별(驛村里)	대전시 유성구(서면) 진민동	*貞民驛이 있던 곳
역말(驛里, 驛村)	공주시 유구면(신상면) 유구리	*維鳩驛이 있던 곳
驛里	공주시 계룡면(의구곡면) 경천리	*敬天驛이 있던 곳
農所(사랑골)	공주시 신풍면(신하면) 평소리	
農所里	계룡시 두마면(식한면) 농소리	
農所(春府, 忠勳府)	서천군 화양면(남상면) 봉명리	*조선 시대 특정 기관 소속의 토지 분포(宮房田·屯田 등)
農基	공주시 유규읍(신상면) 유구리	
船所(戰船所)	서천군 화양면(남상면) 맹월리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에 리명이 없는 지명은 해당 지명이 현재 소멸된 경우이며, 괄호는 1914년 이전의 면 지명임

장인인 화장과 혜장을 통칭하는 용어] 등과 같이 특정 상품을 생산하던 장인의 사회적 명칭을 표기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 시대 수공업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하층민(천민)으로 취급되어 사회적 차별과 규제를 받던 열등한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열세와 천대로 인해 이들이 거주하던 곳을 지칭하는 산업 지명들도 후대로 오면서 대체로 소멸되거나 변형(피천말·피촌말>碑선말)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7>에 제시된 南山白丁(연기군 금남면 남곡리)은 조선시대 문헌에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한글학회(1974, 203)에 실린 내용이 이 지명에 대한 공식적 기록의 전부이다. 이 기록에는 200년 전에 백정 3~4호가 이곳에 살아 이들을 ‘남산백정’이라 불렀으며 남곡리 남쪽 골짜기에 백정의 묘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산백정이 살았던 南谷里(남골)는 『戶口』(1789년)의 기록부터 등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표기 변화 없이 존속하고 있는 지명이다. 현재 남곡리는 30여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0여호가 扶安 林氏이다. 남곡리에는 ‘꽃밭재, 疊堂재(돌땅이), 佛堂재(부처댕이), 道德골(아래뜸), 양아리, 양지뜸’ 등의 소지명이 있으나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 결과 ‘남골, 南山’이란 지명과 ‘남산백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확인할 수 없었다.²²⁾ 다만 한 제보자로부터 우연히 남산백정에 대한 사실을 제보 받을 수 있었다.

남산백정은 과거 양아리의 맞은편 골짜기인 양지뜸에 적은 호수가 살았으며 성씨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소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으며 일제 시대 이전에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한글학회(1974, 203)에서 언급한 백정의 묘비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다만 제보자의 안내로 당시 남산백정의 것으로 전하는 묘소 1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백정의 묘소는 양지뜸에 단 한 채밖에 없는 파란 지붕집에서 남서쪽으로 약 10m 거리의 야산에 있으며, 그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풀에 묻혀 있다. 본 연구는 남산백정을 포함하여 특정 하층민들이 거주하던 산업 지명들이 소멸하게 된 주된 이유를 사회 제도의 변화, 즉 1894년에 시행된 갑오개혁에서 찾았다. 갑오개혁으로 인해 반상차별 등의 제도적인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이후 일상 생활에 잔존하던 신분적 속박과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거주하던 장인들과 그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타지로 이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명이 소멸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남산백정과 함께 조선 후기 열등한 하층 신분의 질적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산업지명으로 ‘갑파점’(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갑파니)이 있다. 갑파점(상갑파, 상갑폐)은 『輿地』에 甲破里, 『戶口』에 上甲破, 甲破店, 『舊韓』에 甲破里로 등재되어 있다(표 8). 특히 1789년 『戶口』에 기록된 갑파점은 가죽신을 만드는 갖바치가 거주하던 곳으로 보여 진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갖바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며, 다만 상갑파 인근의 밭에서 옹기 과편을 자주 발견했다는 사실만을 제공해 주었다. 현재는 과거 이곳이 갖바치가 살던 마을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곳 갑파점의 명명 기반이 되었던 유연성은 소멸된 상태이며, 대신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후반에 서울에서 청양군 비봉면[임향조: 殷善曾(1583~1658)]을 거쳐 공주목 신하면 上甲破 [임향조: 殷遠重(1673~1753)]로 이거한杞溪 殷氏丹城公派의 종족촌 경관이 남아 있다.²³⁾ 그리고 상갑파에서 국사봉으로 이어진 갑파천 상류 골짜기에 1990년 들어선 천주교 수리치골 성지가 자리 잡으면서, 상갑파의 장소성(placeness)은 과거 갑파점을 대체하는 상이한 경관들의 누총에 의해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 지명의 하나로 조선 시대 역참 제도 하에서 존속했던 역도와 역촌의 존재가 연구 지역의 지명에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경계·점이 지대로서의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과거 경성과 근기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연결되는 역도들이 경유하였으며, 여러 역도에 소속되었던 역과 그 역사가 있던 역촌들이 다수 분포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말, 역별(驛村, 驛里)’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역 지명은 역의 명칭이었던 전부 지명소가 현재의 동리 명칭(田民洞, 敬天里, 維鳩里 등)으로 존속하고 있다. 당시 역촌에 거주하던 역민(역인, 역속, 역호, 역노비)들은 특수한 직역을 담당하는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들은 소속 역에서 유이(流移)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조병로,

표 8. 경제적 지명의 변천

지명	輿地 (1757~1765)	戶口 (1789)	舊韓 (1912)	新舊 (1917)	현재	비고
갑파니	甲破里	上甲破 甲破店	甲坡里	.	갑파니, 갑파, 甲坡里(공주시 신 풍면 봉갑리)	
춘부 (농소)	農所里	農所里	農所里	.	春府, 충훈부(서천군 화양면 봉 명리)	*지명 소멸됨(농소) (農所)春府
숯골 (술골)	住幕里 住谷里	酒幕里 酒谷里	酒幕里 東酒谷里 西酒谷里	酒谷里	숯골, 숯골, 동주막거리, 서주막거 리, 酒谷, 酒谷里(논산시 상월면)	(住)酒

1990, 87-130). 조선 고종 32년(1895)에는 비로소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면서 전국의 역이 완전히 폐지되게 되었고 역 관련 지명들의 변형과 변천을 야기하게 되었다. 한편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역 관련 지명과 함께 과거 중앙 관청에 소속된 전토(宮房田, 塘田, 位田)가 분포했던 ‘농소(農所)’ 관련 지명들과 선박을 제조하던 ‘(戰)船所’라는 지명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 화양면(남상면) 봉명리 ‘춘부(春府)’에 위치한 ‘농소’는 조선 시대 충훈부(忠勳府) 소유의 전토인 충훈부 위전이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²⁴⁾ 현재 ‘농소’라는 지명은 『輿地』부터 『戶口』, 『舊韓』에 이르기까지 ‘농소리(農所里)’로 표기 변화 없이 존속되어 오다가 일제 시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춘부’라는 지명으로 변경되었다(표 8). 본 연구는 ‘춘부’라는 지명을 충훈부의 음운이 음절 축약되어 파생된 것(충훈부)춘부으로 본다. 현재 춘부는 약 30호가 거주하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금강 하류의 넓은 평야 지형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는 거센 북서풍으로 몹시 추우며, 15년 전에는 수해로 인해 물이 들마루까지 잠겼던 곳으로 자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과거 마을 이름이 ‘농소’였음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농사만 짓는 곳’이란 말이 듣기 싫어 마을 이름을 주로 ‘춘부’라 부른다고 제보해 주었다.²⁵⁾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춘부’라는 지명이 과거 이곳을 관리하고 지배하던 ‘충훈부’에서 유래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조선 시대 농소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소속 관청과 궁방으로부터 수많은 수탈과 휩박을 감내하며 살

아왔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춘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비동일시 했던 지명인 ‘농소’를 만들었고 자신들을 지배해 왔던 사회적 주체의 명칭(忠勳府)을 오히려 자신들의 촌락 이름으로 동일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상업 지명

공주목 진관 구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특히 ‘공주~판차~노성~초포~황화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조선 시대 주요 간선 도로망이었던 제주로(해남로)가 경유하던 지역으로 ‘주막거리, 주막촌’ 등과 같은 상업 지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표 9).²⁶⁾

특히 <표 9>에 제시된 논산시 상월면(옛 노성 현 하도면) 酒谷里(술골, 숯골)에는 ‘東酒幕거리, 西酒幕거리’, 노성면 교촌리에는 삼남대로(제주로 · 해남로) 상에 있었던 ‘앞술막(앞주막, 酒幕里)’ 등의 사설 주막 관련 지명이 다수 분포하며 이와 관련된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²⁷⁾ 주곡리에 위치한 ‘동주막거리와 서주막거리’는 문현상에 존재할 뿐 현재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소멸된 지명이다. ‘동주막거리’는 현재 주곡리 마을회관 앞의 삼거리로 추정되며 이 길은 서주막거리를 거쳐 노성으로, 용적골과 사설고개(沙峴재)를 넘어 연산으로, 주곡리 윗말과 설무니 고개를 넘어 신도안으로 가는 삼거리이다. 즉 동주막거리는 노성, 연산, 신도안을 연결하는 삼거리에 위치한 주막촌으로서 주막거리의 간선 도로에서 이어지는 소로 내지는 지선 교통로에 해당되는 곳으로 추정된다. ‘서

표 9. 상업 지명

상업 지명	현 행정구역	지명의 유연성 및 사회적 관계
앞술막(앞酒幕)	논산시 노성면(읍내면) 교촌리	* 삼남대로(제주로 · 해남로) 상의 酒幕里
술골, 동주막거리 (酒谷, 東酒幕, 三里)	논산시 상월면(하도면) 주곡리	* 작은 스케일의 도로(소로, 지선)에 위치 * 노성-연산-신도안으로 가는 삼거리
술골, 서주막거리 (酒谷, 西酒幕, 四里)	논산시 상월면(하도면) 주곡리	* 큰 스케일의 도로(대로, 간선)에 위치 * 공주-노성-연산-은진으로 가는 사거리 * 술골>술골(술의 부정적 의미로 인한 변경)
주막촌(酒幕里)	* 연구 지역 내 다수 분포함	
새장터(新場里), 가루전골 (粉塵里), 대전골(竹塵里), 환전터(換垈里)	논산시 강경읍(은진현 김포면) 홍교리, 중앙리, 남교리 일대	* 『輿地』, 『戶口』 기록에는 은진현 김포면에 一里, 二里, 三里의 숫자지명 만이 등재되다가 『舊韓』 기록에서부터 많은 상업 지명과 구체적인 촌락명이 등재되기 시작함

* 주: '현 행정구역' 항목의 괄호는 1914년 이전의 面 지명임

'주막거리'는 현재 691번 지방도 옆의 주곡리 마을 입구 부근으로 공주, 노성, 연산, 은진을 연결하는

사거리, 즉 대로(간선 도로)가 있던 곳이다.²⁸⁾ 이곳에는 일제 시대까지 6~7호의 가옥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주곡리 마을 입구 좌측 산 아래에 1호 만이 있을 뿐이며, 차돌모랭이를 지나 경천, 공주, 한양으로 가던 사거리였다(그림 6).

그런데 주곡리의 고유지명인 '술골'은 조선 시대 새로운 근대 교통수단의 등장과 기존 도보 육상 교통망의 쇠퇴와 함께 '술(酒)'의 부정적 의미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비동일시 되면서 현재는 '숯골'로 인식하고 통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술골(酒谷里)'이 지녔던 본래의 지명 유연성이 변질된 상태이다. 이 밖에 주막촌(酒幕里) 관련 지명은 공주목 진관 구역 곳곳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상공업, 장시, 하운의 발달과 함께 당시 은진현 김포면 강경포(현 논산시 강경읍)에는 『舊韓』 기록에서부터 '새장터(新場里), 가루전골(粉塵里), 대전골(竹塵里), 환전터(換垈里)' 등과 같은 상업 관련 지명이 등재되고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적 지명들은 대체로 조선 시대 경제 활동에 대한 유교적 소양을 지닌 상류층의 비동일시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강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경제적 지명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 유교적 소양을 지닌 사족들이 이거할 경우 이러한 문화정치적 지명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시대 산업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이고



〈魯城縣邑地圖〉 <1872년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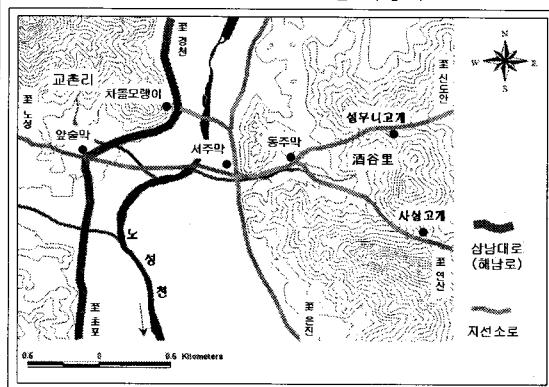


그림 6. 앞술막과 동·서주막의 위치와 주변 지형

차별적인 평가로 인해 그곳에 거주하는 하층의 사회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및 상업 지명들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 론

지명이 지난 유연성을 지명과 공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지명의 지리학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명의 명명 기반이라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은 지명을 생산하고 변경시키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나에 따라 그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선 시대 피지배층으로서의 평민 혹은 천민들은 대체로 지명의 유연성을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자연적 생태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지배층으로서의 사족들은 그들이 소유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아이덴티티를 재현하여 추상적인 지명을 명명하거나 기존 자연적 지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김순배, 2010, 35-37).

그러나 선행된 국내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들은 내부자의 시선을 통해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에 작용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아이덴티티 및 이데올로기 재현과 권력 관계의 경합 양상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특히 차자 표기와 관련된 한국 지명 표기의 다양성을 소홀히 한 채 주어진 지명 표기자의 뜻을 기준으로 단순한 유연성 분류를 시도하면서 지명 유형 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제 한국 지명의 명명과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의 재현, 나아가 이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예증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 지명, 특히 경계 및 점이 지대로서의 공주목 진관 구역의 지명을 사례로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정치적인 의의를 살펴보았다. 공주목 진관 구역의 위치와 영역이 지난 경계적이고 점이적인 성격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거주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에 의한 다양한 지명 생성과 변천 경로를 양산하였다. 특히 공주목 진관 지명들은 전부 지명

소의 명명 유연성에 따라 자연적 지명, 사회적 지명, 경제적 지명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지명이 명명되고 변천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그들의 장소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거나 권력관계를 통해 지명을 변경하려 한 다채로운 문화정치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부 지명소의 명명 유연성이 자연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자연적 지명’은 지명이 생성된 장소의 지형을 반영하는 ‘지형 지명’과 장소의 동서남북 방위, 전후 등의 위치와 그 순서를 표현하는 ‘방위 및 숫자 지명’이 있다. 지형을 유연성으로 하는 지형 지명들은 다른 자연적 지명들에 비해 그 유연성 내지는 유래가 정확하며 가시적인 형태 확인이 가능하다. 지형 지명으로는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되어 각각 산지와 하천의 분기 지형[가래울(楸洞·楸木里)] 등의 ‘가르’계 지명]과 합류 지형[은골·어은골(隱洞·魚隱洞) 등의 ‘얼’계 지명], 평지로 돌출한 선상 구릉 지형[돌고지(戛串之里)·고지말(花村)·들꽃미(野花) 등], 그리고 하천 곡류 지형[무드리·몰도리(水回里·水圖里)] 등을 명명 유연성으로 하는 지명들이 해당된다.

이들 지형 지명들은 일반적으로 지명 언중들의 유연성 인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지명 변천에 있어서도 강한 존속성을 보이므로 문화정치적인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얼’계 지명인 ‘은골(隱洞)’은 표기자인 ‘은(隱)’자가 은일자를 동경하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은둔 사상을 재현하는 지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東一面, 東二面’ 혹은 ‘一里, 二里’ 등과 같은 방위 및 숫자 지명은 언중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지명이 아니라, 지방 행정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대체로 소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명의 명명 유연성이 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소속을 표현하는 ‘사회적 지명’은 특정한 종족 촌락 임을 나타내는 종족촌 및 산소 관련 성씨 지명[강촌(晋州 姜氏)-민촌(驪興 閔氏)-이촌(慶州 李氏), 송산소(恩津 宋氏)-한산소(淸州 韓氏)-박산소(密陽 朴氏) 등]과 군현의 경계 지역에서 소속 군현의 명칭을 전부 지명소로 표기한 군현명 표기 지명

[노성편 · 은진뜸 등]이 있다. 대체로 사회적 지명들은 문화정치적 속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 의미를 둘러싼 사회적 주체 간의 경합과 갈등 양상에 주목하는 문화정치적 지명 연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지명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사족과 같은 상층민들에 의해 생성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지명’은 특정한 하층민이 거주하던 전 산업시대의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지명들로써, 산업 지명[갓점(笠店) · 白丁村 · 農所 등]과 상업 지명[앞술막 · 東酒幕 · 가루전골(粉塵里)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지명들은 조선 시대 경제 활동에 대한 상류층의 멸시와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비동일시 되었고, 후대로 오면서 대체로 소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주목 진관 지명의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인 의의 분석은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한국 지명이 지닌 문화정치적인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공주목 진관 구역 이외의 지명 자료들로 연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들의 지역적 편차와 지역에 따른 지명 변천의 차별적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명 변천의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다양성을 분석하여 문화정치적인 지명 명명과 변천 과정의 규모 및 깊이를 일반화하고 그 일반화에 균열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은 사회적 주체에 의해 하나의 지명이 명명되고, 명명된 지명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명이 명명되는 과정과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외부에 이미 존재하면서 경험되는 지명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에 의해 특정한 지명이 명명되고 인식되는 과정은 지명의 생성과 변천의 기본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은 바로 지명의 의미를 둘러싼 권력관계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며,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 구성에 기여하는 신문화지리

학의 문화정치가 작동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 2) 지명 유연성이란 지명어(記號)의 형식(記標)과 내용(記意)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언어가 자의성(arbitrariness)으로 인해 기표와 기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과는 달리 지명은 해당 지명이 지칭되거나 통용되는 범위, 즉 지명 영역 내의 자연적 · 인문적 속성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순배, 2009, 2).
- 3) 권리관계와 소속(belonging)의 개념에 주목하는 문화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벌이는 문화와 문화공간을 둘러싼 지리적 과정, 투쟁, 변동과 같은 문화전쟁(culture wars)에 관심을 갖는다(Mitchell 2000, 5). 그 결과 문화정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 의미와 구조를 둘러싼 투쟁의 영역으로 문화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관계와 권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 4)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공주목 진관 구역은 조선 초기인 세조 3년(1457)에 확립된 진관체제에서 인용한 것으로 전국의 군현을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로 편성한 군사 조직의 하위 구역이었다. 당시 진관체제 하의 공주목 진관 구역에는 公州牧, 林川郡, 韓山郡, 燕岐縣, 全義縣, 儂德縣, 鎮岑縣, 連山縣, 恩津縣, 魯城縣, 扶餘縣, 石城縣, 定山縣의 13개 군현이 소속되었다.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청양군 일부, 서천군 일부,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곳에 소재하는 고유 지명과 한자 지명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지명으로 선정하였다. 공주목 진관 구역은 경계와 점이 지대로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자연적이고 지정학적인 다양성과 종충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차령산지와 소백(노령)산지 사이의 중부 내륙 평야대에 위치한 공주목 진관 구역은 오랜 역사 시기를 거치면서 핵심 지역으로서의 경기 지방과 주변 지역으로서의 호남 및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반주면의 경계와 점이 지대를 형성했던 곳이다. 이러한 경계와 점이 지대로서의 성격은 이 지역에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 측면의 다양성과 복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지명들을 생성하였고 그 결과 한국 지명에 대한 풍부한 문화정치적인 분석을 가능케 해준다.
- 5) ‘지명 형태소’의 준밀인 ‘지명소’는 ‘지명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이는 다시 전부 지명소(성격 요소, 실질+문법 형태소)와 후부 지명소(분류 요소, 실질 형태소)로 구분된다. 가령 2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절골(寺洞)’은 ‘절(寺)’이 전부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되며, ‘한절골(大寺洞)’은 ‘한절(大寺)’이 전부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 그런데 ‘한절(大寺)’만을 다룰 때는 ‘한(大)’이 전부 지명소, ‘절(寺)’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김순배, 2009, 14).
- 6) 본 논문에서 인용한 주요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新增』, 『東國輿地志』=『東國』, 『輿地圖書』=『輿地』, 『戶口總數』=『戶口』, 『東輿圖』=『東輿』, 『大東輿地圖』=『大

- 圖》, 『大東地志』=『大志』, 『忠淸道邑誌』=『忠淸』, 『朝鮮地誌資料』=『朝鮮』,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舊韓』,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新舊』, 《海東地圖》=《海東》, 《1872년 지방지도》=《1872》.
- 7) '가르(kVrV)' 계 지명과 '얼' 계 지명은 조강봉(2002)에 의해 분류된 용어로, 그는 하천 지형의 합류처와 분기처를 유연성으로 하는 자연 지명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하천의 합류 지역에는 합류 지명인 '이울'계, '얼'계, '을'계 지명이 나타나며, 분기처에는 분기 지명인 '가르'계, '가지(枝)'계, '날(nVrV)'계 지명이 분포함을 제시하여 하천 지형과 관련된 지명의 어원을 계열화하였다. 그런데 하천의 합류 지점은 동시에 분기 지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은 지명 인증들의 지명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8) '두모' 계 지명에 대한 지리학적인 연구로는 국어학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두모'의 어원과 음운 체계를 분석하고 이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연구한 남영우(1996)의 연구가 주목된다.
- 9) 그런데 '꽃~고지~꼬지~꽃(花)' 계 지명은 대부분 '花', '華'로 표기될 경우 본뜻을 버리고 그 훈음만을 빌려 동일음인 '꽃(串)'을 표기한 것이나 그 유연성 분석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최범훈, 1987, 24; 도수희, 2003, 308~310). 평야나 해안에서 지명소를 '꽃', '고지', '꼬지', '꽃', '화'로 하는 지명들은 평야나 해안으로 돌출한 선상 구릉을 반영하는 지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산지에서 나타나는 '꼬지', '꽃', '화' 관련 지명들은 산지의 모양(꽃 모양)을 명명한 훈차 지명일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10) 페쇠(1975)는 보편 주체(신, 국가, 민족, 언어와 지명)에 대해 주체가 갖는 3가지 관계 양상을 동일시, 역동일시, 비동일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Pecheux, 1975, 156~159; 김순배, 2009, 44~47). 보편주체를 '좋은 주체'로 동일시하여 대상과의 같음(sameness)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속한 보편주체, 즉 담론구성체가 생산해 내는 의미를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identification)' 양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일정한 지명을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해주고 강화해주는 긍정적이고 좋은 지명으로 동일시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보편주체(담론구성체)를 '나쁜 주체'로 규정하여 불편해하거나 꺼려하고, 대상과의 다른ness(otherness)과 차이를 지향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는 '역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 양상은 동일시 양상과 함께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거나 재생산하고 나아가 보편주체나 지배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에 반해, 마지막의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 양상은 세계 체계의 작동 방식을 변경시키거나 지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변혁적 주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구조를 생산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명 사례로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일정한 지명의 의미를 '나쁘고 거북한 것'으로 역동일시하거나 비동일

시하면서 새로운 지명의 의미를 생산해 내기 위해 지명을 인위적으로 개명하거나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다.

- 11) 『大田地名誌』(대전시사편찬위원회, 1994, 1210)에는 풍수적으로 해석된 삼정동의 지명 유래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어느 노승이 이 지역의 지세를 보고는 '앞으로 이 땅에는 세 정승이 나올 명당이 있다'고 예언한 땅이라 하여 '삼정골(三政谷)'로 바뀌어 불려졌다고 한다. 이 세 혈은 天穴, 地穴, 人穴인데 그 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천혈에는 은진 송씨가 묘를 냈고 지혈에는 여홍 민씨가, 그리고 인혈에는 충주 박씨가 각각 묘를 써서 모두 가문이 현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수적 지명 해석에 거쳐 희덕현의 지배적 사족이었던 종족들의 이름이 거론됐음에 주목하게 된다. 실제 삼정동에는 세 종족의 묘소[은진 송씨: 宋鍾廉(1840~1889) 묘소, 여홍 민씨: 閔粹(15세기 인물)의 묘소, 충주 박씨: 朴孝誠(1387~1454) 묘소]가 실존하고 있다.
- 12) "...一鄉之中又有南宋北姜之稱故姜氏爲次多焉矣..."[『懷德鄉案序』(朱時烈, 1672)]. 남인에 속한 희덕현의 진주 강씨는 삼정동 인근의 용호동에 1694년 龍湖書院(姜學年, 姜世龜 배향)을 건립하였다. 진주강씨 문중서원인 용호서원의 건립은 당시 서인 세력이었던 은진 송씨와의 향촌 지배를 둘러싼 경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종족 내부적으로는 문중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이정우, 1995, 22~23). 이후 용호서원(용호사)은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기사년(1869년)에 철폐되었다[『龍湖祠: 在一道面...姜鶴年姜世龜并享已依朝令毀破』(『1872년 지방지도』<懷德縣地圖>)].
- 13) 『老峯集(九代祖妣 贈貞夫人 磨山宋氏 閔審言妻 墓表)』(閔鼎重, 1628~1692).
- 14) '아랫말'과 '웃말'의 구분은 마을이 위치한 해발고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해당 촌락 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명명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해발고도나 위도와는 별개로 '지방에서 서울로 上京(올라가다)한다'고 하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우열과 차이가 반영된 경우이다.
- 15) 그 일례로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는 '平澤 林氏들이 새로 이룩한 마을'이란 지명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新林'(연기군 서면 기룡리)이란 성씨 지명이 있다(표 4와 5). 『平澤林氏 吉陽公派譜』(辛酉譜, 1982)와 조치원문화원(2007, 126~127)에 따르면 신림의 평택 임씨는 17세기 초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에 거주 하던 四而堂 林舜宇[조선 인조 23년 乙酉卒(1645)]가 좋은 터를 찾아 입향하면서 세거하게 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신림에는 임씨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지명을 생성시킨 사회적 주체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게 되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림을 '險한 터'로 평가하면서 동쪽으로 500m 부근에 있는 '東山'(사기정골)으로 평택 임씨들이 대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 부분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신림에는 경주 김씨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동산은 전체 25호 중 16호가 평택 임씨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 임낙길(남, 75세)(연기군 서면 기룡리 동산), 林炳錫(남, 1931년생, 77세)(서면 기룡리 동산)(2008.8.14) 등.
- 16) 한 사례로 연기군 금남면(명탄면) 대박리 '웃말'은 한때 '大柳山洞'이란 지명으로 불리었다(표 4, 5). 대유산동이란 지명은 『戶口』에 '柳山所', 『舊韓』에는 '柳山里와 大柳山洞'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의 대박리 웃말인 대유산동에는 일제 시대까지 진주 류씨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많은 재산과 함께 문종서당도 운영했던 이 일대의 유력한 종족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박리에는 대유산동과 관련된 진주 류씨가 단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대유산동이란 지명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대신 대유산동이 위치했던 마을 이름을 '웃말'로 통칭하고 있을 뿐이다.
- 17) 은진 송씨의 재실인 '유전재'는 현재 외손인 안동 김씨의 소유가 되었다. 안동 김씨의 소유가 된 것은 志山 金福漢(1860~1924)의 장남인 김은동이 치가(은진 송씨)의 소유였던 이 재실을 보수하며 살면서 비롯되었다. 묘소와 관련된 은진 송씨는 이후 집안이 쇠탁하여 그 소유가 김은동의 처인 은진 송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병문의 묘소와 주변의 은진 송씨 묘소들은 묵은 묘가 되어 가고 있으며, 다만 공주시에서 벌초 등의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다. 면담: 鄭正雄(남, 71세), 공주시 금성동 송산소, 2008.9.3.
- 18) 면담: 마을 주민 내외(남·여, 70대 후반)(공주시 웅진동 한산소)(2008.9.3), 마을 주민(남, 70대 초반)(웅진동 한산소)(2008.9.4), 鄭大南(남, 70세)(공주시 웅진동 2통 박산소)(2008.9.4) 등.
- 19) 이 외에 연기군 금남면(옛 공주목 명탄면)의 '朴山里', 공주시 계룡면(옛 익구곡면) 중장리의 '柳山里(柳山, 松亭)', 공주시 장기면(옛 장척동면) 봉안리의 '姜山所(강상수)'는 현재 지명의 유연성을 제공한 산소, 즉 高靈 朴氏 朴參判의 묘소, 文化 柳氏 柳兵使의 묘소, 晋州 姜氏 姜致璜(1574~1650?)의 묘소가 각각 박산리 '朴山', 중장리 '柳山(松亭)', 봉안리 '강상수'에 남아 있으며 지명으로도 존속하고 있다. 연기군 금남면의 박산리 '박산'은 원래 함박꽃이 많아 '작약골'(박산과 고래풀 사이)로 불리던 곳으로, 고령 박씨 박참판의 묘소가 생긴 후 생성된 지명이다. 현재 고령 박씨는 宗土를 모두 처분하고 박산을 떠났으며, 박참판의 묘소도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박씨 묘소 1기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박어사네 산소'가 있는 '박산'으로 지명을 인식하고 있으며, '작약골'이란 지명도 경합지명으로 함께 존속하고 있다(표 4, 5). 한편 중장리 '류산'의 문화 류씨의 경우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宗山과 宗番을 모두 처분하고 공주시 이인면으로 모두 이주했으며, 봉안리 '강상수'에는 산직집으로 진주 강씨 1호 만이 묘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공주시 장기면(장척동면) 대교리의 '柳山所(도골, 獨洞)'의 경우 '류산소'란 지명은 소멸되었으나 지명의 유연성을 제공했던 진주 류씨 柳珩(1566~ 1615)의 산소('유대장묘'로 통칭함)와 그의 재실인 금호재는 남아있다. 면담: 강한진씨 부인(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강상수)(2008.9.2), 柳善浩(남, 87세)(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정계)(2008.9.2), 朴魯洙(남, 73세)(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류산)(2008.9.21) 등.
- 20) 이와 관련된 기록을 『朝鮮』(1911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魯五里(諺文: 오그미)"(魯城郡 下道面 洞里村名 항목).
- 21) 노성과 연산의 경계에 동시에 분포했던 오구미는 노성의 오구미 표기자인 '五丘山'이 삼남대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타지 사람들에게 연산의 五口山보다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尼山酒幕...五丘山")["戒逸軒日記(己卯 十二月 十三日)"] (李命龍, 1708~1789). 면담: 김용례(여, 88세)(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안말), 강명식(남, 76세)(오산리 안말)(2008.10.31) 등.
- 22) 남곡리에서의 면담은 임장수(남, 77세)(연기군 금남면 남곡리)(2008.8.26)와 임현택(남, 87세)(남곡리)(2008.8.12) 등이 협조해 주었다.
- 23) 『杞溪俞氏族譜(第三卷)』(杞溪俞氏族譜所, 1991); 「世系帖」(俞熙大 編, 1979). 면담: 俞炳基(남, 68세)(공주시 신풍면 봉감리 봉곡), 俞熙大(남, 84세)(봉감리 상갑파)(2008.9.4) 등
- 24) 충훈부는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했던 조선 시대 관청으로 1894년 기공국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충훈부라는 지명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충훈부)에 비공식 지명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곳 춘부가 과거 충훈부 소유의 위전이었다는 관련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慶尙道固城縣忠勳屯田畝量案」(서울대 규장각 소장,奎 16419)이 현준하고 있어, 1792년(정조 16) 10월에 고성현에서 작성한 同縣 소재 見月員, 二召所員,長坪員, 松峴員의 충훈부 소속 전답에 대한 양안임과 함께 충훈부 소유 토지와 관련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25) 면담: 이의달(남, 83세)(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춘부, 1945년 해방 후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에서 이주), 김동규(남, 82세)(화양면 봉명리 춘부)(2008.8.21.) 등. '農所'春府'로의 지명 변경과 같이 산업화 시대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동일시 현상은 최근의 관보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 안성군 광광면 농촌리]發花洞"(면명칭 변경 및 법정도 설치 승인, 관보 제13838호, 내무부 공고 제 1998-10호, 1998.2.24].
- 26) 강현규(2001, 5-82)는 한명희(1972)의 연구를 토대로 현존하는 춘향전의 여러 판본과 창본을 비교하여 춘향전에 나타난 이몽룡의 남원행 경유 지명을 고찰하였다. 그의 조사에는 공주목 전관 구역에 포함된 조선 시대 제주로(해남로)의 여러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청주목 덕평면 덕평과 공주목 정안면 차령에서 은진현 부근의 여산군 합선면 황화정까지의 경유 지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德坪・德亭～원터

- (院基)~車嶺~팽나무정~흔 범지~고시을~인주인(인지원)~八風亭~광정(廣程·廣亭)~활원(弓院)~모란(毛老院)~수춘~日新~새수막(식술막)~公州~錦江~공주산성(公州山城)~錦營~장거덕·장기때~높은행길~소기·효개·소새~기사원~널티·널퇴·늘퇴~문어미·무내미·무너미 고개~벼들며~부채당이~경천·경천(敬天)~기퇴·개퇴~노성·녀성·앞술막·노승역(魯城)~평창역~풋개·풋기(草浦)~마구평(馬九坪)~사다리·새다리·식다리·스다리·온전 사다리(沙橋)~은진·은진읍(恩津)~깐치당리·깍치막·가치말·간치(鶴旨)당이~오목삼거리~굴먹이~닭다리~황화정·황화정이·황후정니·황우정이(皇華亭)~”
- 27) 조선 시대 주요 대로 상에 위치한 앞술막(尼山酒幕)과 酒谷이란 지명은 조선 후기 개인문집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尼山酒幕...板峙酒幕]”『戒逸軒日記(己卯十二月十三日)』, 李命龍, 1708~1789); “酒谷何無酒...酒谷在尼山近尹明齋宅”(『西坡集(5卷)(詩)』, 吳道一, 1645~1703)], 논산문화원(1994, 217)에는 앞술막(주막거리)과 관련된 전설도 소개되어 있다.
- 28) 현재 ‘숯골’로 통용되는 주곡리 ‘술골’은 清州 楊氏의 종족촌인 윗말(30여 호)과 咸平 李氏의 종족촌인 아랫말(20여 호), 그리고 남쪽 양산(양삼) 아래의 용적골로 이루어져 있다. 주곡리의 동주막과 서주막에 대한 존재는 이방현씨(83세)의 제보로 위치 비정이 가능하였다. 다만 『朝鮮』(1911년)의 魯城郡 下道面 ‘洞里村名條’ 기록에는 ‘東酒谷(訛文: 윗숙골), 西酒谷(아랫숙골)’, ‘酒幕名條’ 기록에 ‘前酒幕(입술막)’이 등재되어 있다. 면담: 楊東稷(남, 68세)(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숯골 윗말), 이방현(남, 83세)(주곡리 숯골 아랫말)(2008.10.31) 등.
- ## 문 헌
- 강현규, 2001, 춘향전에 나타난 어사또 이몽룡의 남원행 경유지명의 고찰(1), 지명학, 6, 5~82.
- 김순배, 2009,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구 공주목 진관 구역을 중심으로, 한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배, 2010, 지명의 이태올로기적 기호화: 유교·불교·풍수 지명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1), 33~59.
- 김순배·김영훈, 2010,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5(2), 201~220.
- 김순배·류제현, 2008,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43(4), 599~619.
- 김옥자, 1991,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와 지리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우, 1996, 고지명 「두모」연구, 지리교육논집, 36(1), 116~125.
- 논산문화원, 1994, 논산 지역의 지명 유래, 논산문화원, 논산.
- 대전시사편찬위원회, 1994, 대전지명지, 대전직할시, 대전.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서울.
- 서명인, 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웅, 1981, 충북 보은군 촌락명의 유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교식, 1989, 경남 합천군의 촌락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1995, 조선후기 회덕현 사족의 향권장악: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충남사학, 7, 1~30.
- 이정우, 1997, 17세기 호서지방 사족가문의 종종 활동 양상과 성격, 충남사학, 9, 65~91.
- 이학원·정장호·김창환, 1995,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와 지리학적 연구, 강원문화연구, 15, 3~24.
- 이환곤, 1986, 충청남도의 지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1979, 충청북도 지명의 유형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진천군과 단양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강봉, 2002, 강·하천의 핵심과 분기처의 지명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병로, 1990, 조선시대 역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치원문화원, 2007, 연기군의 지명 유래, 조치원문화원, 조치원.
- 최범훈, 1987, “경기도 서해안 ‘고지’계 지명고,” 기전문학, 2.
- 海東地圖(1750~1751).
-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1973).
- 戶口總數, 서울대학교출판부 영인본(1996).
- 大東輿地圖, 金正浩(1861).
- 大東地志, 金正浩(1861~1866).
- 1872년 지방지도(1872).
-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1911).
-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1912).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1917).
- 魯城郡面廢合地圖, 조선총독부(1914).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懷德鄉案(壬子本) 序, 宋時烈(1672).
老峯集(九代祖妣 贈貞夫人 磨山宋氏 閔審言妻 墓表), 閔鼎重(1628~1692).
戒逸軒日記(己卯 十二月 十三日), 李命龍(1708~1789).
西坡集(5卷)(詩), 吳道一(1645~1703).
平澤林氏參判(府使) 吉陽公派譜(辛酉譜)(1982).
杞溪俞氏族譜(第三卷), 杞溪俞氏族譜所(1991).
慶尙道固城縣忠勳屯田畝量案,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6419(1792).
朝鮮總督府 官報. 大韓民國政府 官報. 東亞日報. 大韓每日申報.
Angehrn, E., 1985, *Geschichte und Identität*,
Walter de Gruyter, Berlin.
Jackson, P., 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Kim, Sun-Bae, 2010, The Cultural Politics of Place Names in Korea: Contestation of Place Names' Territories and Construction of Territorial Identi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2), 161-186.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Pêcheux, M., 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trans., Nagpal, H., 1982, The Macmillan Press, London.

(접수: 2011.4.6, 수정: 2011.5.13, 채택: 2011.6.9)